




성남아트센터 개관 기념 심포지움

문화도시 만들기와 성남아트센터의 비전

일시 2005년 9월 28일(수) 14:00~17:30

장소 성남아트센터 소극장(앙상블 시어터)

주최  성남문화재단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주관 (사)문화사회연구소

후원 성남시, 한국예총성남지부, 성남문화원, 아름방송

성남아트센터 개관 기념 심포지움

.....

일시 : 2005년 9월 28일(수) 14:00 - 17: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소극장(양상블 시어터)

주최 :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주관 : 사단법인 문화사회연구소

후원 : 성남시, 한국예총성남지부, 성남문화원, 아름방송

■ 프로그램

사회 : 김종해 (성남예총 이사, 경기문화재단)

인사말(2:00-2:10) : 이종덕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축사(2:10-2:20) : 윤광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남선우 (성남문화원 원장)

기조발제(2:20-3:00)

“21세기 문화도시 만들기: 비전과 전략 - 강준혁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장)

발제(3:00-4:00)

발제1. 문화도시 성남의 정체성과 아트센터의 역할 - 김성태(경기예총 수석부회장)

발제2. 국내외 아트센터 운영 유형 비교

-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정책팀장)

발제3. 성남아트센터의 운영방향과 발전방안 -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휴식(4:00-4:15)

토론(4:15-4:45)

김보성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 학장)

김주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지금중 (문화연대 사무총장)

최준호 (예술의 전당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하동근 (성남문화연대 공동대표)

종합토론(4:45-5:30)

■ 자료집 목차

발제1. 문화도시 성남의 정체성과 아트센터의 역할	1
- 김성태(경기에총 수석부회장)	
발제2. 국내외 아트센터 운영 유형 비교	10
-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정책팀장)	
발제3. 성남아트센터의 운영방향과 발전방안	25
-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성남아트센터 발전 방향에 대한 성남 시민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39
성남아트센터 발전 방향에 대한 성남 시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41

문화도시 성남의 정체성과 아트센터의 역할

김성태 / 경기도총 수석부회장

1. 성남문화의 정체성

성남의 정체성은 문화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양면에 뿌리를 두고 있는 포괄적이고 다면적 주제이다.

본 발제는 성남의 문화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성남아트센터의 개관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성남문화현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성남문화의 정체성은 도시생성과정의 특이한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서 개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성남은 서울시 철거민 이주정책에 의하여 탄생된 인공도시다.

1960년대 이후에 개발된 다양한 신도시들 중 한국역사상 최초의 특수한 목적 하에 정책적으로 개발된 성남은 도시개발 이전까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부와 대왕면, 돌마면, 낙생면으로 분포된 산간벽지에 불과하였고 광주군청 소재지인 경안은 물론이고, 중부면의 경우에는 과거 남한산성내 면소재지인 산성리화도 교통상 격리되어 자연친화적 도시생성이 어려운 조건이었다.

1969년 5월2일 48세대 154명이 첫입주, 1개월만에 500세대2352명. 12월말 총 2213세대 1만1,133명이 입주. 선 입주 후 건설의 전형적 양상이 전개된 것이다.

성남은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에서 1973년7월1일 성남시로 승격(법률제2597호)되었다.

1969년 3월부터 실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4년5개월만에 인구 19만명(18%원주민외 전국각지 이주민)의

인공도시 성남이 탄생한 것이다.

시제 실시 당시 불완전주택이 4223동(판자집3123채, 천막865채)이었음이 사회현상을 가늠케 한다.

이러한 개발초기의 사회현상 속에서 1972년 성남어머니합창단(초대단장.전옥녀)이 발족.

시승격 이후 정부의 중장기 문화발전5개년계획(1974~1978)도 성남의 도시생성 특수여건과 서울접변의 지리적 상황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성남문화는 문화 불모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성남에 입주한 예술인들이 1974년 자생적으로 성남미술인회, 산성문학동우회, 성남문우회, 성남서우회, 성남미술교사회, 성남예술인회, 성남연극인회, 란무회, 성남사진동우회 등을 속속 발족하여 예술인맥이 이루어지고 문화예술 활동의 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1975년 11월 성남문인협회(초대지부장. 권기홍), 1980년 9월 성남문화원이 설립인준(초대원장. 조명천)되고 1982년 2월 성남국악협회(초대지회장. 이준식), 1983년 9월 성남미술협회(초대지부장. 남궁원), 1985년 4월 성남무용협회(초대지부장. 정금란), 동년11월 성남연극협회(초대지부장. 주수광), 1986년 1월 성남연예협회(초대지부장. 조이수)등의 문화예술단체가 창립되면서 단위별 예술행사가 등장하였고 1986년 2월 성남예총(초대지부장. 임홍규)이 창립되면서 예술사업의 가시화가 전개되었다.

1987년 10월 성남음악협회(초대지부장. 남기중), 1988년 4월 한국사진작가협회(초대지부장. 오종창)가 연이어 창립되어 예술 각 장르별 조화로운 연계가 이루어졌다.

1986년 10월에 개최된 제1회 성남종합예술제(성남문화예술제)가 최초의 성남시 예산지원사업이었고 이때 지원액이 200만원 (이지원액은 1991년 제6회까지 증액 없이 유지되었음)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10여년전의 지역 문화정책과 예술계의 활동환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88년 9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립정책에 의하여 600만평의 구릉지에 42만을 수용하는 계획도시 분당이 탄생되어 성남은 또 한번의 정책에 의한 역사적 변혁을 맞는 도시가 되었다.

분당은 서울중심에서 동남방251km반경과 강남지구와는 10km이내의 교통요충지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릉지다.

서편은 광고산, 청계산, 국사봉등과 동편은 매지봉, 문형산, 건단산, 북쪽은 우면산, 구룡산등 남쪽은 불곡산이 위치1991년 7월1일 광주군 중부면 6개리와 대월면, 낙생면, 돌마면을 합쳐 경기도 성남출장소가 설치되고 입주가 개시되던 동년9월17일 분당구청으로 승격되어 성남시에 편입되었다.

분당은 상업, 교육, 문화등 자족기능을 갖춘 첨단 정보도시의 프랜을 가진 계획도시의 출발이었다.

성남이 지닌 태생적 인공도시와 계획도시의 이원화에 따른 사회환경과 문화적 격차는 신.구시가지 시민정서의 갈등구조를 야기하여 시민사회통합의 한계를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남겼다.

분당에 입주한 영화인들이 중심이 되어 1996년 8월 성남영화인협회(초대지부장. 이경빈)가 창립되고 분당예술인동우회가 자생적 모임을 태동하였으며 1997년 10월 분당수필문학회(초대회장. 정임옥), 분당거주 미술전업 작가들로 1999년 4월 분당구상작가회(초대회장. 장완)를 창립하는등, 분당 예술인들의 지역 활동이 개시 되면서 신.구 예술인들의 상호 교류가 활발하였다.

한편, 분당에 입주한 중앙활동중심의 예술 인력을 지역사회 활동무대로 영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개인적 여건 등이 피동적이고 배타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의 분당

이주는 성남인프라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지역 예술 활동의 사회접변에 영향을 주었다.

성남의 문화정책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발전의 주요전략으로 설정되고 이를 통한 시민정서의 통합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지방정부가 문화발전 전략을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제19회(1992년)성남시민의 날을 계기로 관제용 의례행사가 문화행사로 전환되고 일회적이고 단편적이던 예술단체들의 자생적 프로그램이 예산지원 대상사업으로 연중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기반시설이 도시의 외형적 발전에 비하여 열악하였고 이후 시민회관, 분당야외공연장을 주 공간으로 활용하는 외에 시 전역을 문화공간화 하는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작품발표 성향은 정형화된 장르에서 실험적이고 현장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에 시각을 돌리는 창의적 전환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평가이다.

1997년 설립된 경기문화재단과 2001년부터 시행된 성남문화예술발전기금등 일련의 문화예술 예산지원 공모사업등도 지역예술단체 및 예술인 활동을 상승하게 하는 정책이었다. 2001년도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가 170여개로 확산되는 등 단기간에 사회적인 문화역량이 집중된 것도 성남만의 특이한 문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문화정책이 「집중과 선택」 중심이 아닌 연례사업의 유지차원에서 시대에 걸 맞는 프로그램과 연결되지 못하였고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전국무용제(제1회 장려,3회 우수상), 전국연극제(제20회 최우수상), 2002월드컵문화축제 경기최고평가, 경기도자기EXPO축제 최우수 프로그램 선정, 중국요녕성예술제 한국대표로 초청공연, 심양한국주간 2001년부터 초청공연 정례화, 전국사진공모전 연례개최, 분당심포니 미국케네디센터 초청연주 등은 지역예술의 질적 향상을 들어낸 결과 였다.

한편, 성남이무술집터 다지는 소리, 판교쌍용줄다리기등의 민속발굴과 재현, 정일당 강씨, 둔촌 이집, 송산 조견, 이수, 이격석, 한산 이씨, 전주 이씨 태안군과 묘역 등이 사료조사와 학술적 재조명으로 향토유적 및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고, 근자에는 발해대학의 삼학사 비를 복원 제작하여 성남에 건립하는 시민추진위의 활동도 전개되는 등, 지역전통문화 발굴 보존의 업적도 괄목할만한 결과이다. 성남문화예술은 정체성 확립이라는 대명제의 시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총체적으로 전통과 현대의 「다양화 속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여 성남문화예술의 경쟁력과 잠재력이 입증되었다.

지층문화와 문화정책의 공백상태에서 출발한 성남문화예술의 생명력은 한마디로 개척과 희생정신의 발로였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제 성남은 984,790명(372,460세대)의 주민이 공존하는 거대도시로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의 개관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지표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방향을 재수정 할 때이다.

.

성남 30년 역사를 개척과 불굴의 의지로 가꾸고 지켜온 시민정신은 새로운 성남문화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에너지다.

참고. 성남문화예술단체현황 및 성남문화예술제(제14회)프로그램을 참조바람

[표1] 성남문화예술단체현황(무순, 2005년 8월 현재)

단체명	대표자	단체명	대표자	단체명	대표자
성남예총	방영기	한국국악협회성남지부	부명희	대한시우회성남지회	홍영표
성남민예총	황정주	성남국악예술단	김영자	열린마당도움소	강승호
성남문화원	남선우	이향우경기민요단	이향우	불휘패사물놀이	박정철
성남문화연구소	하동근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정길선	교사국악연구회	전보경
한국문협성남지부	김건중	판소리보존회성남지부	문효심	성남농협주부농악단	김태희
성남여성문학회	이명숙	우리소리연구회솟대	전순필	풍물소리사위	박덕현
문학시대동인	엄향화	성남국악단	박호성	풍물굿패우리마당	임인출
분당수필문학회	조재은	창작타악그룹살매	강승호	한국음악협회성남지부	주익수
시립국악단	지휘 한상일	시립합창단	지휘 박창훈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임명운
시립교향악단	지휘 주익성	성남시여성합창단	정미자	분당구어머니합창단	김은숙
수정구어머니합창단	백원임	중원구어머니합창단	류선영	21세기혼성합창단	안예환
아주여성합창단	임명운	아주소년소녀합창단	윤명애	분당여성합창단	전미자
분당맑은노래친구들	윤금선	분당아버지합창단	임신덕	성남교사플룻오케스트라	이상운
메이저플룻오케스트라	사헌순	분당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은숙	성남오라토리오합창단	김용섭
동요로세상을여는아이들	이희승	분당만돌린앙상블	윤자희	분당MINT오케스트라	어운자
분당원드오케스트라	나현식	분당주니어필하모닉	강신홍	분당챔버오케스트라	지휘 임철석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박용준	에반젤브라스합주단	이준석	음악연구화하늘나라	최영주
성남대중음악연구회	성기훈	실버합창단	송영일	분당청소년오케스트라	김용교
성남시교교OB합창단연합회	조은원	LOS AMIGOS클래식 기타합주단	최주홍	성남서예청년작가회	이순덕
한국무용협회성남지부	이선아	성남무용단	김종해	어울림청소년무용단	조성란
이수림무용단	이순림	빛여울어머니무용단	정은파	황미숙현대무용단	황미숙
우리춤예술원	이경화	풀이무용단	조민자	이정희현대무용단	이정희
발레미래	권경미	한국사진작가협회 성남지부	김영길	성남사진단체총연합회	남용하

성남사진동우회	변동광	까치사진동우회	조성섭	분당경찰서사우회	유연종
성남주부사진동호회	김복자	사진모임녹색회	김종규	무한포커스사우회	승상훈
한국현국협회성남지부	조성일	극단동선	이주희	극단해뜨는언덕	이정근
성남뮤지컬컴퍼니	김창봉	한국연예협회성남지부	이영식	한국미술협회성남지부	김영실
성남서예가총연합회	오교선	한국서예협회성남지부	유경식	성남조각회	김영원
한미골미술인회	송 창	자유미술그룹IN	김은옥	한국서가협회성남지부	김방희
한국문인화협회성남지부	최영성	선우회	황 철	현대미술여성작가회	조영실
산성작가회	김원술	한국영화인협회성남지부	임선택	성남시민영상제작단	최은현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회성남지회	배금용	풀집공예연구회	전성임	성남한화예술단	정순돈
정금란기념사업회	이대교	박태현기념사업회	김성태	웰뮤직분당오페라단	양명희
방영기경기민요단	방영기	분당조이앙상블	박은숙	분당작가협회	김종상
성남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김숙경	주부풍물패두렁	문정숙	세경어머니국악단	심지원

[표2] 성남문화예술제(1999년도 제14회 행사일정표)

일 자	시간(기간)	행사명	장 소	일 자	시간(기간)	행사명	장 소
	~17(일)	인터넷성남문화예술제	인터넷가상공간		~17(일)	성남문화예술제 미술작품전	초림역
10월 8일 금요일	~17(일)	성남문화예술제 기록사진전	행사장 일원	10월 13일 수요일	~17(일)	모란장 프로젝트	시청로비
	~12(화)	성남과거와 현재의얼굴전	시청로비		10:00	영화제	시민회관 대강당
	~11(월)	성남시화원연합회 제2회꽃꽃이작품전	분당중앙공원 수내동가옥앞		11:30	로봇태권V	
	~14(목)	모란시장을 다시 디자인한다	시민회관로비		15:00	영화제	시립청소녀수 련관
	19:30	성남문화예술제 전야경축음악회	시민회관대강당		19:00	내마음의풍금	
10월 9일 토요일	~17(일)	상설기획전시	시내일원	10월 14일 목요일	10:00	예술순회공연	혜은학교
	~10(일)	시화전(징검다리,성남)	분당중앙공원내		16:00	성남고교연극제 계원예고-가스펠	시립청소녀수 련관
	~10(일)	분당로데오거리축제	서현역로데오거 리		~18(월)	99성남전국분재축제	분당구청앞녹 지대
	~17(일)	99열린 서예전	분당중앙공원내		~15(금)	향토인물학술회의	문화원강당
	~15(금)	성남문화예술제 사진작품전	한신코아6층전 시설		10:00	제14회성남학생 국악경연대회	시민회관 소강당
	11:00 14:00	예술순회공연	신흥주공A관리 사무소앞.		14:00 16:00	성남고교연극제 낙생고-제3의교실	시립청소녀 수련관
					15:00	성남문화예술제 국악제	시민회관 대강당
					17:00	상설공연	모란장터내

	17:00		한신코아 정문앞. 중앙공원 분수대광장				
	18:00 19:00	성남문화예술제 개막행사	분당야외공연장		19:00	99시민을 위한영화제-타잔	중앙공원 잔디광장
	19:00	시민노래자랑	분당야외공연장		~16(토)	제11회성남전국시조,가사,가 곡경창대회	시민회관 소강당
	21:00	99성남 난장축제	분당야외공연장		11:00	예술순회공연	성은학교
10월 10일 일 요 일	10:00	만화그리기 및 만화창작전시회	분당중앙공원내	10월 15일 금 요 일	14:00	성남고교연극제 성보정보산업고-우리로서는 소리	시립청소년 수련관
	10:00	시민백일장	분당중앙공원내		19:00	성남문화예술제 음악제	시민회관 대강당
	11:00	제14회성남학생무용경연대회	시민회관소강당		19:00	99시민을위한 영화제-유령	중앙공원 잔디광장
	14:00	99어린이조형예술제	야외공연장일대		13:00	전통놀이축제의장 (강정일당상시상식)	중앙공원광장
	15:00	경기도지정무형문화재시연	중앙공원분수대 광장	10월 16일 토 요 일	14:00 17:00	마당놀이 동방삭턴	남한산성 유원지내
	13:00 15:00 17:00	예술순회공연	삼성플라자로데 오거리. 야외공연장원형 광장. 울동공원내		15:00	성남문화예술제 무용제	시민회관 대강당
	16:00 19:00	성남문화예술제(연극제)좋은 녀석들	시민회관대강당		14:00 16:00	성남고교연극제 분당중앙고-방황하는별들	시립청소년 수련관
	17:00	상설공연	남한산성유원지 내		17:00	영화제 로봇태권V	시민회관 대강당
	18:00	문학강연,시낭송	시민회관소강당		19:00	상설청소년문화축제 (댄스경연)	분당야외 공연장
	10:00	동별어머니합창경연대회	시민회관대강당		~17(일)	시화전 (징검다리,성남)	남산산성 유원지내
	14:00 16:00	성남고교연극제 (불곡고)-알을깨고나오는새야	시민회과소강당		~17(일)	분당로데오 거리축제	서현역 로데오거리
	17:00	예술순회공연	상대원선경A내		10월 17일 일	10:00	가훈씨주기
10월	10:00	영화제	시민회관	11:00	탄천살리기	분당구청뒤	

12월 화 요 일	11:30	로봇태권V	대강당	요 일		시민한마당	탄천고수부지
	15:00	영화제			11:00	99성남사랑어린이 조형미술대축제	황송공원
	19:00	아름다운시절					
	14:00	장수노인사진찍어주기	분당중앙 공원내		11:00	상설공연	황송공원
					13:00	어린이.청소년을위한 활제작및활쏘기대회	남한산성 유원지내
					14:00	성남교향악축제	분당울동공원
					15:00	성남시민과함께하는 외국인민속놀이한마당	시민회관 대강당
					15:00	상설청소년문화의거리축제- 방송영상제	분당구청 회의실
17:00	가야금인간문화재 이영희선생초청공연	시민회관 소강당					

2. 성남아트센터의 역할

성남아트센터는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개최하는 복합 전문예술 공간으로 2000년5월24일 착공식을 가진 이후 만 5년5개월 만에 개관한다.

아트센터는 성남문화의 「아젠다」로, 시민의 예술향유를 위한 공공시장(art market)으로, 세계속에 성남문화를 심는 전초기지로, 성남문화의 미래를 향한 이상을 지니고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성남아트센터의 개관과 운영관리는 지역의 문화향수층 뿐만 아니고 예술계 초미의 관심사다.

1973년 서울장충동에 국립극장이 신축된 이래 2005년1월 현재 전국의 문예회관은 133개소가 운영중이고 34개소가 건립중이라는 통계이다.

대개의 공공 문예회관이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건립하여 〈지역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예술창달〉 등의 지역문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합은 성남아트센터 또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수의 문예회관은 관료적인 성격이 강하고 예술 콘텐츠에 대한 지식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미비하여 본래의 건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부실운영의 사례가 많았다.

성남아트센터는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발전적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성남아트센터의 역할에 대하여는 여타한 이견과 시각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몇가지만 요약한다.

(1) 서비스 경영관리

성남아트센터의 주체는 시민이고 시민은 아트센터가 제공하는 아트마켓의 고객이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정신을 우선해야한다.

시민은 공연물을 감상하는 단순한 관람객의 피동적 대상이 아니라 아트센터의 투자자인 주주이고 동시에 고객이다.

시민은 민주적 가치관 함양과 문화복지를 수혜 받을 기본권 증진을 위하여 아트센터에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였다.

시민이 문화적 자긍심을 갖도록 아트센터의 문은 열려 있어야 한다.

성남아트센터는 성남이라는 특정의 지역정서와 21세기 최첨단 예술사조를 동시에 수용해야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세계화의 주력에 앞서 세계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적 토양을 만드는 선결작업이 필요하다.

아트센터는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의 공익적 이익을 위한 창의적 효율성을 서비스 정신으로 창출해야 한다.

성남아트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은 서비스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2) 효율적 재정관리

아트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관리는 시민의 담세를 경감하고 재정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다양하고 탄탄한 마케팅 기획과 전략은 아트센터의 재정 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에 절대적 요소이나 세수에 비중을 두어 특수계층의 전유물이거나 지나친 상업성도 경계할 일이다.

신·구 주민의 문화적 정서, 계층간의 문화간격을 고려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시민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적정한 관람료와 대관료를 산정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아트센터는 고유의 목적사업에만 전념해야 하고 방만한 사업운영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3) 지역예술 경쟁력 향상과 협력체제 구축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아트센터를 통하여 보다 활동영역과 기반을 넓히고 잠재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정예화 하지 못한 지역예술계의 생태적 한계와 여건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의 결과로 생활수단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문화현상이다. 소수의 전업 예술인을 제외하면 일정수준의 전문가라도 아마추어 형태를 극복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지역연고 중견예술인들의 지역연계도 이루어져야하는 한편, 청소년문화단체들의 육성방안도 조성되어야 한다.

성남아트센터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책임이 막중하다.

성남아트센터의 존재 이유인 지역문화의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성과의 소통과 유대감이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이다.

지역예술의 경쟁력이 성남미래의 힘이며 아트센터의 자산이다.

(4) 아트센터의 독립체산기구화

성남아트센터는 성남문화재단과 분리되어 경영 전문인력 시스템에 의한 독립체산 책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2004년 12월22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의 1차 목표는 아트센터 경영관리 운영이었다.

성남문화재단은 지역문화의 전반적 트렌드를 전담하는 정책기구로 그 목적이 시설운영관리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지배적 의견이고 시민사회의 여론이었다.

성남문화재단의 조직기구는 이사장(성남시장)1인, 상임이사 1인(아트센터사장 겸직), 이사회(비상근). 공연사업국(공연기획. 극장운영. 무대기술. 시민회관운영), 문화사업국(문화기획. 전시기획. 교육기획), 기획운영국(총무. 경영기획. 시설관리), 홍보실, 축제추진단등 1관3국1단1실10부로 편성되어 재단의 설립목표가 아트센터 경영에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가 성남문화재단의 전신일 수는 없다.

아트센터 관리운영은 시스템만 구성되면 문화예술. 정책. 행정전문가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지역문화예술의 축이 성남문화재단으로 이완되는 상황임을 예견해볼 때 재단=아트센터 등식의 정책기구와 관리기구의 전담을 아트센터가 종횡할 여지가 있음은 아트센터의 한계이다.

성남아트센터는 경영관리의 독립체산 책임제로 운영되어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해야 한다.

성남아트센터의 개관을 축하드린다

- 참고자료 : 성남시사30년사. 성남문화재단 ACT2015

국내외 아트센터 운영 유형 비교

박영정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예술정책팀장

1. 조건의 분석

성남아트센터 개관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미 성남아트센터의 운영방향의 핵심 요소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성남시에서는 개관에 앞서 성남아트센터를 운영할 주체인 성남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개관 준비에 대응하고 있고, 기존의 시립예술단체들을 상주단체 형식으로 입주시키는 등 큰 그림이 만들어진 상태이다. '명품' 공연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페스티벌을 통해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프로그램 공급의 줄기도 마련된 셈이다. 그 때문인지 오늘의 논의가 오히려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상적인 틀로만 얘기하자면 성남아트센터 설립 초기 단계에 '운영구상'이 나오고, 그러한 운영 방향에 기초하여 건축물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입지에서부터 지역문화환경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무대의 구조의 개척의 규모, 형태 등을 정할 일이다. 한마디로 용도를 먼저 설정하고, 그 용도에 맞추어 시설을 짓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아트센터의 입지에서부터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나의 조건으로 주어진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성남아트센터의 운영방향을 논하자면 그 조건의 해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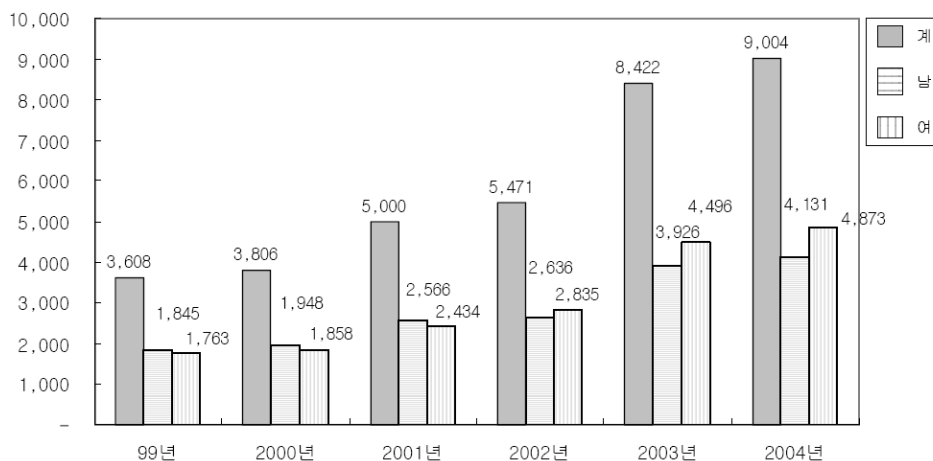
성남시는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이다.

[표1] 성남시 지역별 인구 현황(외국인 포함)

구 분	인구	구성비
계	986,170명	100.00%
수정구	264,382명	26.80%
중원구	274,262명	27.81%
분당구	447,526명	45.38%

*성남시 행정기획국, 『2005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2004.12.31)

그럼에도 제대로 된 전문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용자층은 주로 서울의 예술의전당이나 멀리는 대학로, 세종문화회관 등을 이용하여 왔고, 지역 내에서는 성남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연을 관람하는 정도였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보아 성남시의 성별, 연령별 인구 분포는 다른 지역과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저출산 추세를 반영하여 9세 이하 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프로그램 기획 시 이러한 인구 현황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료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남시민의 주간(晝間) 생활권 현황, 특히 서울지역으로의 통학, 통근 현황도 성남아트센터 운영방향 설정에서 고려할 요소 중 하나가 아닌가 한다.



[그림1] 성남시 연도별 외국인 증가 추이 (단위: 명)

*성남시 행정기획국, 『2005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2004.12.31)

또한 성남아트센터의 입지를 본다면, 광역적 차원에서는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로 연결되는 경기 남동부지역의 거점 센터로 기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강남 예술의전당이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지만, 광주시나 용인시의 경우에는 경쟁관계보다는 협력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주변 지역 주민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협력적 관계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성남시 내부로 들어와 보면 구시가지가 아닌 분당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물리적 접근성만 보면 성남시 전체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해 있어 시내 어느 곳으로부터도 유사한 접근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접근성면에서 보면 분당구민들이 보다 직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설 위치로만 보면 신·구시가지 사이의 '격차'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트센터의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본다면 오페라하우스(1,805석), 콘서트홀(994석), 앙상블씨어터(400석)의 3개의 공연장과 전시실, 연습실 등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예술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총 객석 수 3,199석으로 관객 수용 규모가 매우 큰 편이지만 성남시 전체 인구가 100만에 가깝고, 아트센터 인근 분당구 인구만 해도 45만 정도이기 때문에 잠재 수요는 높다고 하겠다. 객석점유율을 평균 50%, 연간 가동일수를 150일로 할 경우 요구되는 연간 관객 총수는 $3,199\text{석} \times 0.5 \times 150\text{일} = 239,925\text{명}$ 이다.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관객의 평균 연간 관람 횟수를 1.5회 정도로 잡는다면, $239,925\text{명} \div 1.5 = 159,950\text{명}$ 이 실질적 관객수가 된다. 이는 성남시 인구의 16.22%($159,950\text{명} \div 986,170\text{명}$), 분당구민 35.74%($159,950\text{명} \div 447,526\text{명}$)에 해당한다. 또한 문화시설 주 이용자층인 20~40대 인구의 29.81%($159,950\text{명} \div 536,558\text{명}$)에 해당한다. 지난 2003년도 『문화예술향수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연평균 관람률은 연극 11.1%, 클래식음악회/오페라 6.3%, 전통예술공연 5.2%, 무용 1.1%, 대중가요콘서트/연예 10.3%로 나타났으며, 관람자들의 연간 관람횟수는 연극 1.88회, 클래식음악회/오페라 2.06회, 전통예술공연 1.42회, 무용 1.24회, 대중가요콘서트/연예 1.85회(이상 평균 1.69회)이다. 따라서 성남아트센터 공연장 부문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3개의 공연장이 각각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특성을 분명히 갖추고 있다는 점도 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장이 콘서트 전용홀로 지어진 만큼 3개의 공연장 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단체 현황도 검토 대상이다. 성남아트센터 입장에서는 지역예술단체가 주요한 프로그램 공급원이 되고, 지역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성남아트센터의 활동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2] 성남시 공연예술 단체 현황

장르	연극	음악(양악)	음악(국악)	무용	시립예술단	계
단체수	7	26	11	13	4	61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사(2005.8.31)

최근 5년 동안 성남시에 적을 두고 활동한 적이 있는 공연예술단체는 모두 61개인데, 이러한 현황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많은 편에 속한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는 단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4개의 시립예술단은 모두 성남아트센터와 상주단체의 관계를 맺고 있다. 시립예술단 이외의 민간예술단체는 축제프로그램이나 연습실 등을 통해 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성남시에서 운영중인 다른 문화시설과의 관계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특히 운영체계에 있어서 직접적 관계망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성남아트센터가 거점기관의 성격을 갖게 될 것이며, 더욱이 성남문화재단의 구조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문화재단에서 성남시민회관의 운영을 맡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예에 속한다. 이 경우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아트센터의 기능 분담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이 점 장기적 검토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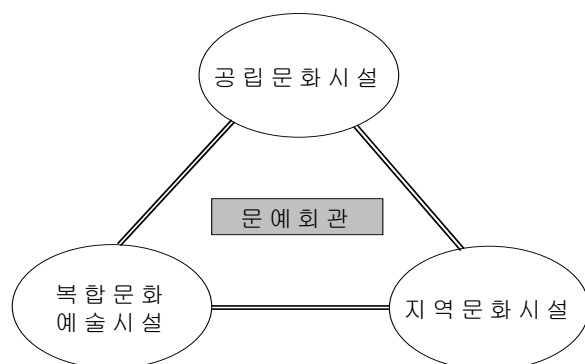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아트센터의 운영유형을 ①기본 성격과 기능, ②프로그램 공급방식, ③운영형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성남아트센터의 운영방향 설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2. 기본성격과 기능: 전문예술시설인가 커뮤니티문화시설인가

성남아트센터는 행정적으로 볼 때 ‘지방문예회관’에 속한다.

문예회관이란 문화예술회관의 약칭이다. 일반적으로 문예회관은 공연과 전시를 중심기능으로 하면서 문화예술교육, 회의,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예술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예술장르의 창작과 유통 센터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정보센터로서의 기능까지도 겸하고 있는 곳이 바로 문예회관이다. 즉, 예술시설로서만이 아니라 문화시설로서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문예회관 표준모델 개발연구』(문화관광부, 2001)에 의하면 문예회관의 기본성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2] 문예회관의 세 가지 기본 성격

첫째, 문예회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립문화시설이다. ‘공연법’ 제8조 ‘공공공연장’의 대표적인 것이 문예회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문예회관은 민간에서 건립한 여러 극장, 예를 들어 ‘엘지아트센터’ 등과는 구분되며, 크게 보면 과거 ‘시민회관’의 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주로 광역 시·도 및 시·군·구에서 각기 하나의 문예회관을 짓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으며, 각 지방 자치단체가 건축주가 되고, 거기에 소정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문예회관이 문화행정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공공문화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해 준다.

둘째, 문예회관은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 성격의 문화예술시설이다. 이는 문예회관에 관한 유일한 법적 규정인 ‘문화예술진흥법’(개정 이전의 구법) 제2조 제3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문예회관의 용도가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장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전시장 및 학술행사장으로서의 기능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문화예술시설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문예회관은 지역문화 창조의 거점 공간이 되는 지역문화시설이다. ‘1시·도 및 시·군·구 1문예회관’의 건립 방향으로 보더라도 문예회관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예회관의 특성상 지역 주민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예회관은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발표의 장을 제공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예회관은 세 가지 성격을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을 고루 갖추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예술 창작과 유통을 위한 공연장 공간, 시각예술의 창작과 유통을 위한 전시장 공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교육공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회의공간, 예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간, 지역예술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단체공간이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될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문예회관이 6가지 기능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하나의 문예회관에서는 세 가지 성격의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각각 개성적인 특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130여 개 문예회관의 대부분은 공연장 중심 또는 공연장 + 전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개관된 몇몇 문예회관에서는 공연장기능 + 전시장기능 + 문화예술교육센터기능의 세 가지 기능을 유사한 비중으로 설정한 곳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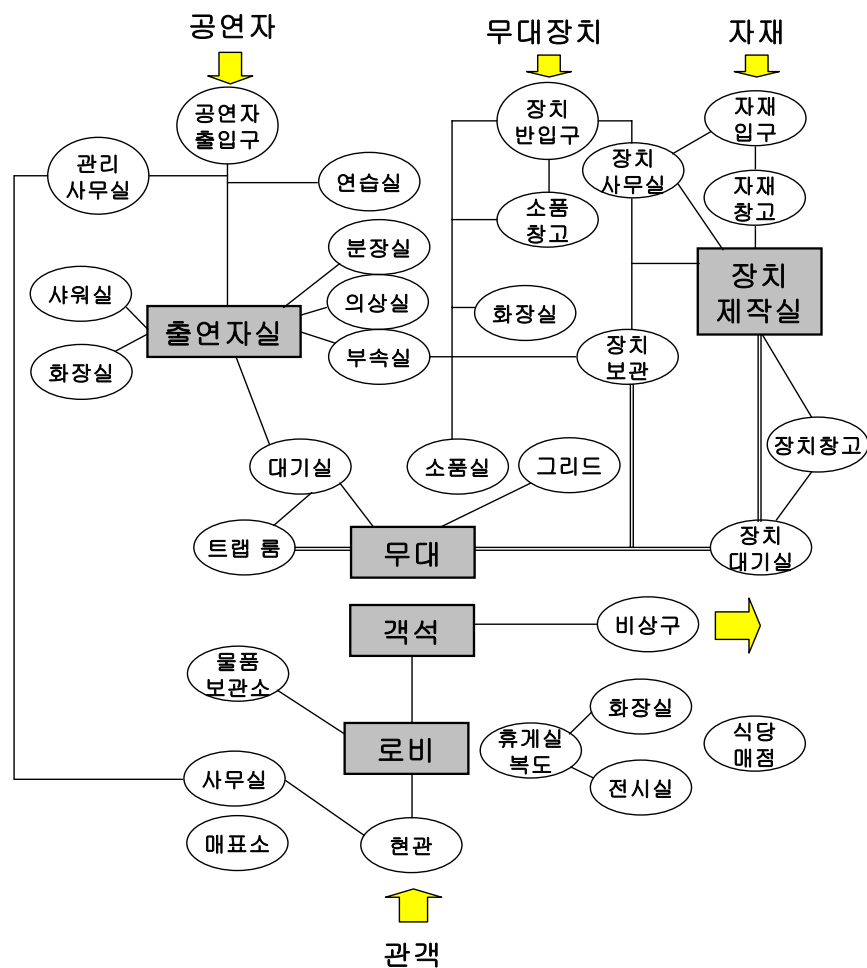
그 어느 곳이든 공연장이 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되는 것이 중요하나 여전히 프로시니엄아치무대의 다목적 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부분적으로 전문적인 전용홀이 등장하고 있다. 다목적 홀보다 전용 홀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다목적 홀은 극장르 일반은 물론, 콘서트, 영화상영에 일반 행사에 이르기까지 건축학적 요구가 다른 여러 행사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정작 예술적 공연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목적 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문제이다.

또한 문예회관의 존재성과 관련하여 전문예술시설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커뮤니티시설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예회관은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건립 운영되므로 지역사회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흔히 아트센터형 시설과 커뮤니티센터형 시설의 구분이 여기에서 발생하는데, 전문적인 예술시설의 성격을 강조하여 프로페셔널한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작품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전자이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나 창조활동 지원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후자이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는 지역 사정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개별 시설마다 스스로 자기 존재성을 규정하는 '미션'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3. 프로그램 공급 방식: 대관인가 제작인가

프로그램 공급에 대해서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3] 제작형 공연장의 공간 구성

문예회관의 프로그램 공급방식은 프로그램 공급원이 공연장 내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에 따라 대관형, 대관과 자체 기획 병행형, 대관-자체기획-자체제작 병행형, 자체제작형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유럽식 공공 공연장은 극장을 대표하는 예술단체가 있고, 그 단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급되는 레파토리가 중심이 되는 제작형 극장이다. 이 경우 단체와 공연장은 한 몸과 같으며, 공연장 안에는 무대 상연을 위한 공간이나 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제작과 관련된 공간과 시설이 함께 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개의 전속단체를 보유한 국립중앙극장만이 제작형 공연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에서도 공립예술단체를 전속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속단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양질의 레파토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긍정적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속단체가 공연장이나 문예회관 운영의 경직성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진부한 레파토리만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문예회관은 기본적으로 대관형 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의 문화회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시설관리', 이를테면 '열쇠관리'만 하는 곳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공연기획의 개념이 도입되어 대부분의 문예회관은 대관 프로그램 + 자체기획 프로그램 병행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자체기획의 상당부분은 외부의 공연단체와 '공동기획'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프로그램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공연단체와 공연장의 관계이다. 일단 공연장에 사무실이나 연습실을 두고 공연단체는 전속단체, 상주단체, 입주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속단체는 공연장 조직의 한 부서로서 존재하는 공연단체로서 국립중앙극장의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그 예이다. 상주단체는 공연단체와 공연장의 조직적 관계는 없고, 상호 약정에 의해 공연장에서는 사무실이나 연습실, 나아가서는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연단체에서는 일정 편수, 일정 횟수의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에 한해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는 관계이다. 입주단체는 공연단체가 공연장의 일부 공간을 순수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임차관계로 성립되는 관계이다. 문예회관의 경우 공립예술단체가 전속단체 형식으로 존속하던 관계에서 점차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상주단체 형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상주단체는 전속단체에 비해 운영상의 경직성은 완화시켜 주면서도 프로그램 공급의 안정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운영 방식의 하나로 기대되고 있다.

4. 공공 아트센터 운영 형태: 직영인가 위탁운영인가

문예회관과 같은 공공 아트센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운영 형태이다.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직영하는 방식에는 지자체의 한 부서에 해당하는 사업소 방식과 경영자만을 외부에서 초빙하는 책임 운영기관 또는 대표자의 개방형 임용과 같은 방식이 있다. 외부 위탁, 다른 말로 민간위탁에는 수탁자의 성격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순수 민간부문으로 민간의 예술단체나 사단법인, 민간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지자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지역문화재단이나 재단법인,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문예회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을 정리하면 ①직영사업소로 운영, ②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③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④지역문화재단이나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 ⑤민간의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5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3] 지방 문예회관 위·수탁기관 현황

지역	시설명	위탁기관명	수탁기관명
서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재)세종문화회관
	관악문화관	서울시 관악구	관악문화원
인천	서구문화회관	인천시 서구	서구시설관리공단
	계양문화회관	인천시 계양구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문화회관	인천시	인천예총
광주	서구문화센터	광주시 서구	광주 YMCA
경기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재)경기도문화의전당
	덕양어울림누리	고양시	고양문화재단
	안양문예회관	안양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과천시민회관	과천시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용인문예회관	용인시	용인시시설관리공단
	부천시민회관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안성문예회관	안성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전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	예원학원
충북	*청주예술의전당	충청북도	청주시
경남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경상남도	진주문화예술재단
	창원성산아트홀	창원시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진해시민회관	진해시	김병숙
	합천문화회관	합천군	합천문화원

그 어느 형식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역시 지역마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최근의 흐름은 직영에서 외부 위탁, 그 중에서도 순수 민간 위탁보다는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이나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형태가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종문화회관이나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같이 문예회관의 규모가 크거나 광역시·도로서 지역내 문화예술진흥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맡고,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담당하고, 세종문화회관(삼청각 포함) 운영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여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담당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국악당 운영은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설립하여 위탁하고 있다.

□ 사례1-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1-3

○ 연혁:

1961.10.31 : 우남회관 준공

1961.11.7 : 서울시민회관으로 개칭, 개관

1974.1.1 : 세종문화회관 착공(설계: 엄덕문)

1978.4.14 : 준공(시공사:대림건설)

1998.11.23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운영조례 제정

1999.7.1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 출범→대표(총감독) 이종덕

2001.10.29 : 삼청각 준공

○ 설립 목적: 정관 제2조(법인 설치 목적)

- 법인은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해
- 서울특별시 시민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함

○ 사업소개: 정관 제4조(법인의 사업)

- 법인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2. 삼청각의 운영 (신설 2002.01.05)

3.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개정 2002.01.05)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개정 2002.01.05)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2002.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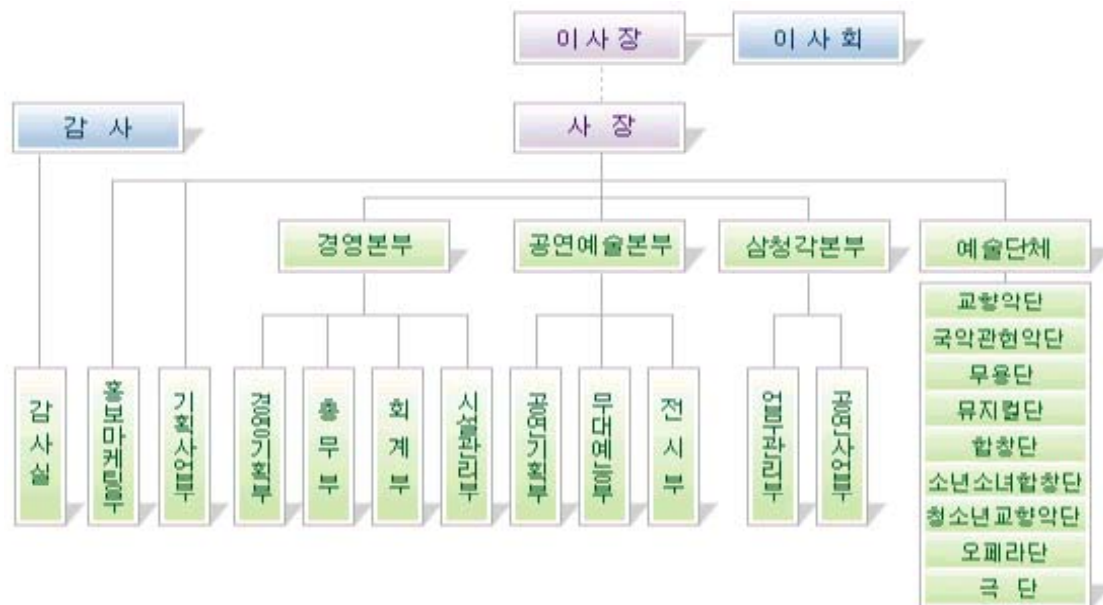
6.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2.01.05)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2.01.05)

○ 설치근거: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 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조직과 기구



[그림4] (재)세종문화회관 조직도

□ 사례2-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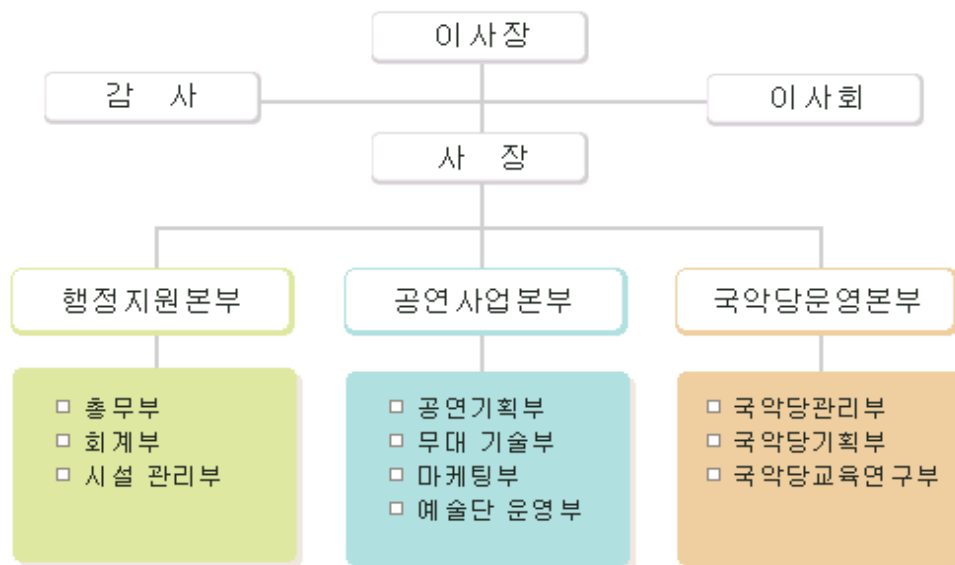
- 1984.03 지방문화시설확충계획확정 설계공모
- 1985.12 공사착공
- 1988.01 경기도기술자문위원회 구성
- 1990.11 도립 극단 창단
- 1991.06 준공 및 개관
- 1993.07 도립 무용단 창단
- 1996.08 도립 국악단 창단
- 1997.10 도립 오케스트라 창단
- 2004.06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출범

○ 설립 목적

- 문화예술의 창달,
- 도민의 문화향수 제고
- 문예 공간 운영등을 위한 사업 수행

○ 사업 소개: 정관 제3조(사업)

1. 도 문예시설의 운영
 2.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5. 그밖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
- 설치근거: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조례 제2조 (법인격)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 조직과 기구



[그림5] (재)경기도문화의전당 조직도

한편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예회관 운영을 위탁하는 사례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서 사례가 나타난다. 부천시의 부천문화재단, 고양시의 고양문화재단, 그리고 성남시의 성남문화재단이 주요 사례이다. 이 세 도시의 경우 문예회관의 규모는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규모가 작아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한 후 거기에 지역문화진흥사업과 문예회관운영사업의 두 가지를 모두 맡기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일본에서 보다 일반화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사업 분야 간의 역할 조정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비록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부의 사업부서는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1 - 고양시의 고양문화재단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 167

○ 연혁:

- 2003.10.18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03.11.24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발기인 대회
- 2003.12.17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총감독 임용
- 2004.1.6.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
- 2004.5. 새우는 덕양어울림누리 부분 개관
- 2004.8. 새우는 덕양어울림누리 소극장 개관
- 2004.9. 새우는 고양 덕양어울림누리 공연장 개관
- 2005.8. 새우는 고양 덕양어울림누리 전면 개관(예정)
- 2005.12. 꽃피는 한메 일산아람누리 개관 (예정)

○ 설립목적

-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소개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센터 운영
2. 문예회관 운영
3.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그 보급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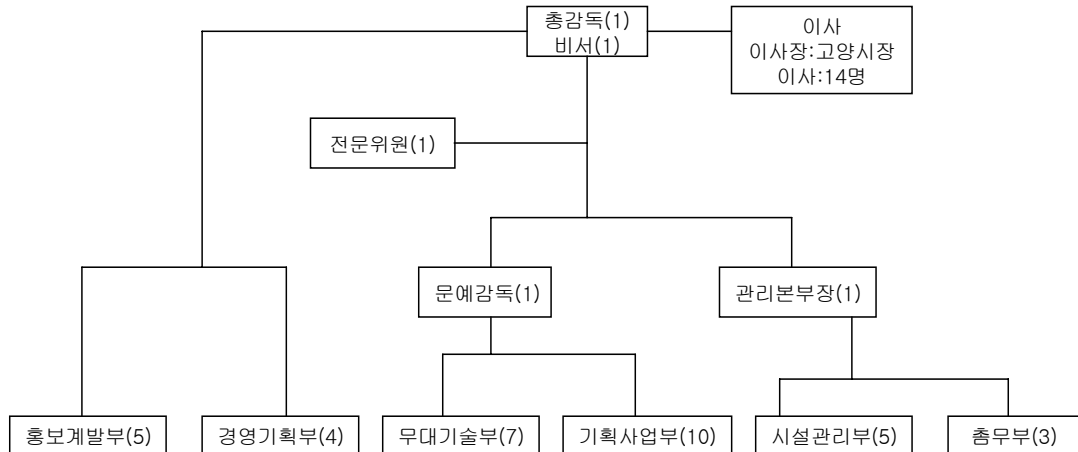
분 아	세부사업
덕양어울림누리(덕양문화체육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문화복지시설로서의 위상 정립 - 시민을 위한 공연 및 전시기획사업 -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시설대관사업 - 어린이,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사업(영재교육사업 등) - 체육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사업 - 문화교실 및 전문강좌 사업(회원 중심)
일산아람누리(일산문화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문화시설로서의 위상 정립 - 국내외 우수 공연 및 전시유치사업 - 예술관련 전문 문헌자료실 운영 및 정보 제공 - 관람객을 위한 부대/편의시설 운영
시민을 위한 문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 위탁하는 문화예술사업

	-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축제 - 행주문화제, 꽃박람회 등의 행사와 연계된 전문화된 프로그램
--	-------------------------------------------------------------

○ 설치근거 :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조직과 기구



[그림6] 고양문화재단 조직도

□ 사례2 - 부천시의 부천문화재단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번지 복사골 문화센터

○ 연혁

2001.10.1: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출범

- 기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 소속이었던 문화기획실,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사업팀, 여성회관 운영팀, 청소년수련관 운영팀으로 바뀌었고, 시설팀, 경영기획팀, 업무지원팀이 신설되었으며, 시민회관이 편입되면서 현 부천문화재단 조직 체제를 구축

○ 설립목적

- 문화정책, 문예진흥, 문화복지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도시 부천”을 구현

- 보편적 삶과 연계되는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과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활력소를 제공하여 “문화도시 부천” 만들기

- 지역예술인과 부천시민이 서로 편안하게 조우하여 문화예술진흥, 문화복지 증진을 실감하도록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소개

제4조 (대상사업) 법인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천시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2. 부천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4.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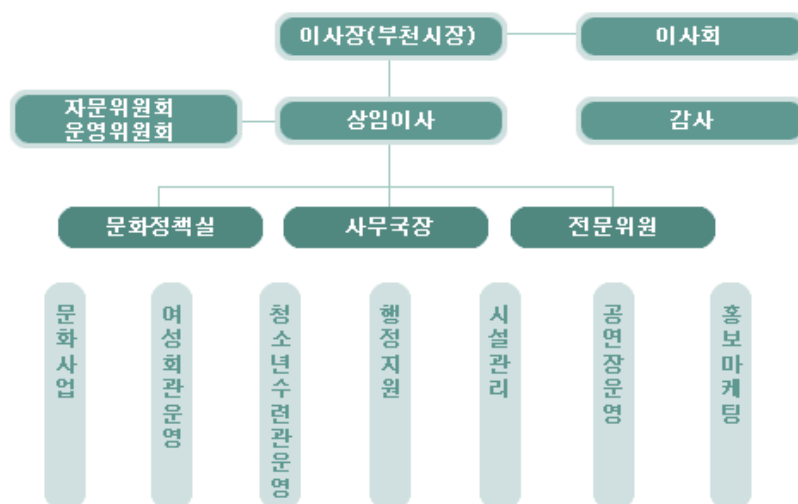
사업분야	세부 내용
문화정책	- 정책연구 - 네트워크사업 - 문화재단 경영기획
문예진흥	- 문화예술기획사업 및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예술인 지원사업 - 문화네트워크 및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 청소년 교육사업, - 청소년 자율동아리 육성, - 학교연계사업의 개발 - 어린이도서관과 문예자료실 운영 - 여성 경제활동 및 복지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 설치근거: 부천시 문화재단법인설치 및 운영조례

- 제2조 (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설립)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조직과 기구



[그림] 부천문화재단 조직도

그렇다면 어떠한 운영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직영 방식에 비해 위탁 운영이 갖는 장점으로 언급되는 것은 독립성, 전문성, 유연성 등을 들고 있다. 지자체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순환근무에 의해 배치되는 공무원보다는 문예회관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성이 가능하고,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사업계획과 집행, 그리고 조직관리 면에서의 유연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에 위탁할 경우는 공공시설로서의 공공성 구현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고, 직영사업소에 비해 재정의 압박을 받을 여지도 크다. 그러한 면에서 순수 민간에 맡길 때의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그리고 직영체제가 지니고 있는 '정부실패'의 양극단을 피한 제3의 길로 제시된 것이 지역문화재단이나 독립적인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지역 실정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시설관리공단인 경우처럼 지자체와 조직체 분리는 이루어졌다 해도 공단 내부에서 순환근무체제가 유지된다든지 하는 것처럼 해당 시설의 독립적 운영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위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아츠센터 운영 부문은 재단 내에서도 독립성이 강한 구조로 배치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의무적 멘트-과제들

앞에서 살펴본 요소별로 성남아트센터와 연관지어 몇 가지 과제를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고자 한다.

성남아트센터가 자신의 기본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다. 개관 이후 구체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서히 가시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나, 좀더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미션 스테이트먼트(사명서)와 같은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공급에 있어서는 시립예술단체를 상주단체화하여 유연한 관계를 확보함으로써, 프로그램 공급의 역동성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원화된 프로그램 공급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연장별 프로그램 기획에 유의했으면 한다.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성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동 재단에 위탁하여 성남아트센터와 시민회관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부천시, 고양시와 유사한 방식에 해당한다. 운영 형태면에서 중요한 문제는 성남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의 관계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 안에서 독립성 강한 부서로 성남아트센터를 배치하고, 성남문화재단이 펼치는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상호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성남문화재단이 지역 내 예술단체 지원사업이나 관객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 성남아트센터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객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 말이다. 성남문화재단 안에서 성남아트센터의 '내부 독립성' 확립은 역설적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방향과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아트센터의 운영방향과 발전방향

이동연 /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 성남아트센터: '중심 같은 지역'에서 '지역 같은 중심'으로

성남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성남아트센터가 오는 10월 14일에 개관한다. 개관 기념공연으로 예정되어 있는 길버트 카플란 초청 KBS 교향악단 '말러 교향곡 2번' 협연도 손색이 없는데다, 올해 기획하고 있는 나머지 10개의 공연 레퍼토리¹⁾도 지역의 문화환경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기대를 모으는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1995년 지방 자치단체가 시작된 이래 광역권의 도시들과 수도권 도시들은 앞다투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글로벌 문화시대에 걸맞는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의 문화인프라 건립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시키면서 지역의 문화여건과는 무관하게 전시성 프로젝트로 변질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한 2000년 이후 새로 건립된 지역의 공연장 이름을 보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예술의전당',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 서울의 '예술의 전당'을 준용하려는 사례들도 많았는데, 이 역시 '지역의 서울화', '공연장규모의 경제학'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연장의 명칭으로만 놓고 보면 중앙집권 중심의 시대에 획일적으로 기획되었던 이른바 '문예회관'의 시대가 지역의 글로벌화를 선언한 이후 '예술의 전당' 시대로 이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지역문화의 분권과 문화다양성을 위해 설립되고 있는 최

1) 올해 기획되어 있는 공연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오페라 "파우스트"공연>, <마티아스 피르네 독창회>, <몬테카를로 발레단 "신데렐라" 공연>, <정명훈 아시아연합오케스트라 협연>, <토마시 스타코 재즈콰르텟>, <런던필 장영주 협연>,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백건우 협연>, <피아니스트 백혜선 독주회>, <피아니스트 손열음 독주회>, <유키 구라모토 내한공연>

근의 공연장의 위용들을 다시 평가해보면, 이 역시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중앙의 문화를 답습하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건립 초기 당시 ‘성남예술의전당’으로 이름을 지으려했던 성남아트센터도 이러한 지역문화 인프라 건립이 안고 있는 중앙지향적인 관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물론 지역 시민들에게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시설의 공연장과 질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 토대이다.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이렇다할만한 공연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성남의 열악한 문화인프라 환경을 감안한다면 성남아트센터 건립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면서 성남의 문화예술의 질적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 문화인프라는 필요조건 중의 하나이지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성남아트센터의 건립으로 인해 성남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연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수급과 지역시민들의 높은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정책이 충분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공간, 특히 대형 공연장이 중앙을 모방하는 복제형 공간이 아니라 지역에 차별화된 새로운 중심을 만드는 문화정책을 고민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재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지역 공연장들이 당면한 과제이다. 성남아트센터가 전시성 예술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과 자원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성남아트센터가 다른 지역의 공연장과 차별화할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성남아트센터가 성남지역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더불어 분당지역과 구도심지역의 문화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이 발제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남아트센터의 위상과 운영방향

2000년 들어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새로운 전략 수립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변화를 꼽으라면 아마도 문화재단의 설립과 복합문화예술공간의 건립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단 설립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부천문화재단, 제주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등이 계속해서 설립되었다. 지역의 문화재단은 성격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지역에서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문화예술정책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표1] 주요 문화재단 운영 비교

재단 명칭 (설립연도)	설립목적과 지원방향	조직운영 부속기관	주요사업
경기문화재단 (1997)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증진 문화예술의 창작진흥,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관련 정보화 사업 및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전통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2실(기획조정실, 문예진흥실), 기전문화재연구원, 기전문화대학, 8팀(기획협력, 총무, 문예진흥, 문화사업, 관리, 교육기획, 미디어), 북부사무소, 백남준미술관건립추진, 남한산성추진, 연구실, 경기도 사이버문화 추진단	경기도 문화예술자료구축 및 정책연구 경기도 전통문화유산발굴 전통생활문화의 현대적 계승 경기도 정신문화의 재구축예술문화창작 활성화체제를 통한 문화교류 미디어를 활용한 경기도 문화예술 홍보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교류 증진
부천문화재단 (2001)	-지역정서와 지역문화 수립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기회 제공 -풍성하고 활발한 문화교류	1실(문화정책실), 1국(사무국), 전문위원, 7팀(문화사업팀, 여성화관운영팀, 청소년팀, 행정지원 시설관리, 공연장운영, 홍보마케팅)	-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 부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관리 -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개발연구
강원문화재단 (2000)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문화예술 정책개발,자문,연구용역 -문화예술 행사 또는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문화예술정보교류센터 운영,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테마박물관 등 도 지정사업 지원 재능있는 예술인 발굴 및 육성	1처(사무처), 1실(문예진흥실), 4부(사무, 기획, 문화예술고고, 국제부) 사무총장 등 17명 도립예술단 운영 재단부설 강원문화재단연구소 운영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지원사업운영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
제주문화예술재단(2001)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문화예술정보교류, 문화재연구소, 조형연구소 운영	1처(사무처), 2부(문예진흥부/운영관리부), 5팀(문화기획, 예술진흥, 교류정보, 운영관리, 총무팀)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 문화예술사회교육 지원 - 문화산업의 육성 지원 - 공공예술(Public Art)연구 보급
고양문화재단	-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 - 고양 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 - 「미래의 문화도시 고양」 건설과 「문화적 시민사회구현」을 목표로 하는 시 문화정책의 적극적 수행 - 지역문화의 모체로서 문화예술 활동 및 인적자원의 공급과 지원자로서의 역할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후원 유도	관리본부, 문예감독 산하 6부(총무부, 시설관리부, 기획사업부, 무대기술부, 경영기획부, 홍보개발부)	-덕양어울림누리(덕양문화체육센터)운영 -일산아람누리(일산문화센터) 운영 - 시민을 위한 문화사업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축제, 행주문화제, 꽃박람회 등의 행사와 연계된 전문화된 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	- 문화, 예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1처(사무처), 2국(기획운영국,	- 문화예술창작환경조성

	- 문화, 예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문화사업국), 5부(기획조정부, 운영지원부, 문화네트워크부, 문예지원부, 문화사업부), 3팀 (정책연구팀, 서울열린극장창동팀, 청계천문화사업팀)	-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서비스 확대 - 서울의 문화경쟁력 강화 - 서울의 문예진흥 기반 구축
성남문화재단	- 성남시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성남 문화의 정체성 확립 - 성남 시민 문화향수 기회확대 - 문화창달활동 등을 통한 시민 문화 복지 구현 - 성남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	3국(공연사업국, 문화사업국, 기획운영국), 1단(축제추진단), 1실(홍보실), 10부(공연기획부, 극장운영부, 무대기술부, 시민회관 운영부, 문화기획부, 전시기획부, 교육기획부, 총무부, 경영기획부, 시설관리부)	- 성남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 국내외 우수 공연 및 전시유치사업 - 성남 아트페스티벌 운영 - 아카데미 운영

지역의 문화재단의 경쟁적인 출범은 지역분권의 정체성에 있어 문화적 의미가 크다는 것을 예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문화가 정치과 행정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정책을 일관되게 수립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재단 설립의 보편적인 취지와는 무관하게 지역의 문화역량 부재와 문화예술정책 마인드 부족, 전문 문화인력들의 불안정한 위치 등의 문제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명칭만 자율적 재단으로 설정했을 뿐, 여전히 기존의 관변적인 운영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력부족과 정책 비전의 부족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문화재단의 설립과 함께 2000년도에 들어서 대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의 건립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대규모 국제 규모의 공연장이 지역에 건립이 되는 상황은 지역의 문화환경이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전환점을 가져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규모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에 걸 맞는 질 높은 공연프로그램들이 기획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연문화 현실과 지역의 문화환경의 조건 속에서 대규모 공연장에 채울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지역시민들의 공연 참여 열기가 얼마나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표2] 지역 주요 복합문화 예술공간의 현황

명칭(건립연도)	건립목적 및 운영방향	조직운영 및 시설	주요사업 및 상주단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2003)	-문화예술창달과 시민향유기획확대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을 선보이는 품격화된 공연장 -디지털기능을 갖춘 첨단시설과 교육기능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교류 증진	2과(공연기획과, 무대예술과), 6팀(관리, 시설, 홍보마케팅, 공연기획, 기계장치, 조명, 음향) 아트홀(1546), 앙상블홀(651), 컨벤션홀(100), 원형극장(1000)	기획공연, 대관공연, 교육아카데미사업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합창단, 대전시립무용단,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

청주예술의전당 (1995)	전통과 현대의 조화 열린문화예술의 정신	2과(운영, 시설관리) 6담당(관 리, 문예, 체육, 무대, 시설, 기 술) 대공연장(1277), 소공연장(296), 회의실, 전시실	상설단체 공연, 기획공연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 용단, 시립국악단
의정부 예술의 전당(2001)	지역시민들의 균등한 문화혜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1팀(운영) 4계(기획, 공연, 시설, 무대) 대극장(1057), 소극장, 전시장, 국제회의장	기획초청공연, 미술전시회
안산문화예술의 전당(2004)	국제적 수준의 문화인프라 구축 지역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4담당(행정, 공연기획, 무대에 술, 시설) 해돋이극장(1592) 달맞이극장 (714), 별무리(200)	기획 및 초청공연과 전시프로그램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덕양 어울림 누리(2004)	도시자율적 기능 충족 문화예술발전 이바지 공동체 의식과 애향성 고취	고양어울림극장(1242) 별모래극장(375)	기획및 초청공연 전시행사
성남아트센터(2005)	국제적 문화예술공간 발전 차별화된 브랜드 파워 구축 소비자중심의 운영지향 디지털 디자인 마케팅강화 예술성과 대중성 조화 전문적인 예술경영과 행정제도 정착	1국(공연사업) 4부(공연기획, 극 장운영, 무대기술, 시민회관) 대극장(1778), 중극장(999), 소 극장(424)	자체기획, 초청공연, 대관공연 및 전시기획

성남아트센터 역시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공연인프라의 선진화, 국제화만으로는 지역의 공연문화를 바꿀 수 없다는 점을 깊게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남아트센터가 수도권의 유사한 공연시설과 차별화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아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1) 성남아트센터의 문화정체성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공연장의 규모나 입지적인 조건을 검토해보았을 때, 성남아트센터는 서울의 ‘예술의 전당’과 지역 공연장의 중간에 위치에 놓여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공연장의 문화정책이나 예술경영에 있어서 예술의 전당의 방식을 원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토착적인 운영방식을 따르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가령 성남아트센터가 잠재적인 고객으로 삼고 있는 관객들 중에서 지리적 환

경을 고려할 때, '예술의 전당'의 잠재관객과 겹치는 면이 있고, 이는 자연 공연기획이나 공연프로그램의 내용에서도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예상케 한다. 성남아트센터의 지리적 위치는 운영의 위상과 상통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성남아트센터는 '예술의 전당'의 '위성 공연장'으로 평가되거나, 아니면 주변지역의 관객들을 흡수하는 새로운 국지적인 자생 공연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반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세계 사조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을 지향해야하는 성남아트센터는 기획방향에서 보다 사려 깊을 필요가 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 '세계'를 본다면 성남아트센터는 세계와 지역을 동시에 보아야하는 이중적인 시야를 운명으로 타고난 셈이다.²⁾

성남아트센터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가령 다른 지역의 공연장 가령 의정부나 안산 청주의 공연장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지역문화에 특성에 뿌리내리는 국지적인 정착이 필요한 반면, 성남아트센터는 나름대로 글로벌한 국지성을 지향하면서 다른 지역의 공연장과는 다른 위상을 모색하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남아트센터는 다른 공연장과 다르게 상설예술단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지역의 문화재단과 독립되어 있지 않고 그 하부구조로 포함되어 있다. 즉 성남아트센터는 글로벌한 공연기획의 여지를 어느 지역의 공연장에 비해 많이 남겨두고 있고, 잠재 관객들의 수준을 고려하면 자체 기획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적 레퍼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남아트센터의 운영방향에 있어 좀 더 국지적인 정체성을 강화하는가, 아니면 글로벌한 정체성을 강화하는가 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물론 위 도표에서 명시했듯이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기본방향을 검토해 보면 국지적인 정체성 보다는 글로벌한 정체성을 더 지향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정체성이 둘로 구분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른바 '글로벌한 공연문화'(glocal performance culture)로 적절하게 조화해야하는 것이 모든 지역 공연장이 안고있는 과제라는 점에서 성남아트센터가 글로벌하면서도 동시에 로컬한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있다.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한 성남아트센터의 문화정체성은 1) 내실있는 자체 기획력의 확대와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새로운 공연프로그램의 개발, 2) 지역시민들로 관객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관객개발전략, 3) 공연의 관객으로서만이 아닌 문화교육의 주인으로 지역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4) 지역시민들이 관객서포터즈가 되어 공연재원의 지역 토대를 구축, 5)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글로벌한 공연프로그램의 제시와 같은 대안들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ACT2015』, 2005, 68쪽

(2) 성남문화재단과의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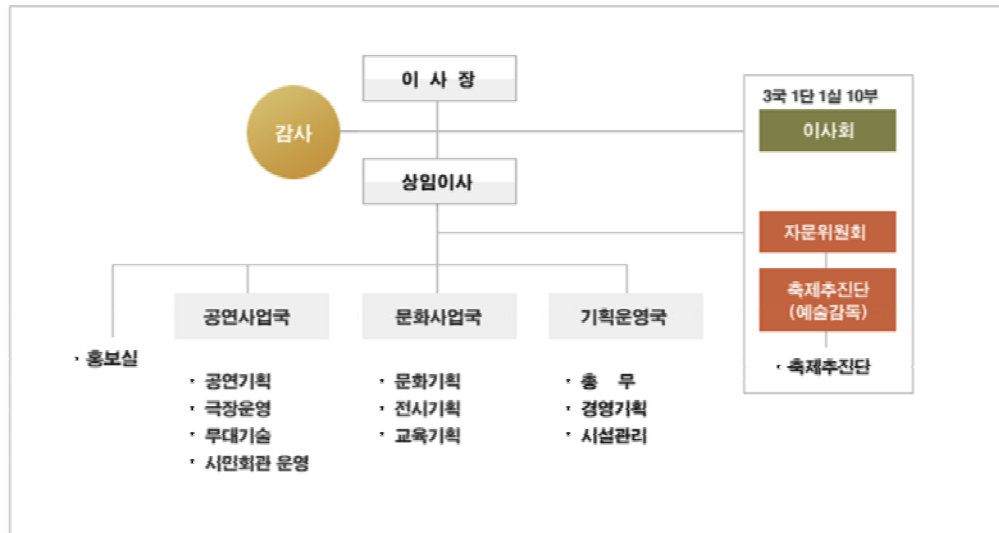
성남아트센터가 다른 공연장의 성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역의 문화재단 안에 속해있으면서 상설단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예술의 전당의 경우에는 독립 특수법인 형태로서 특정한 재단에 속해있지 않고 상설단체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반면 국립극장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책임운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상설 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도 서울문화재단 소속이 아닌 독립된 재단 법인이지만, 국립극장과 마찬가지로 상설예술단을 보유하고 있다. 규모가 비슷한 도시의 공연장을 비교해보면, 공연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설예술단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대전문화예술의 전당'과 '청주예술의전당', '안산예술의전당'이 있고,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의 문화재단에 속해 있지 않은 공연장으로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고양덕올림 누리'를 들 수 있다. 지역의 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일부 재단이 상설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연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새롭게 개관한 공연장 중에서 성남아트센터는 유일하게 지역을 문화예술지원을 대표하는 문화재단 안에 속해있으면서 동시에 상설예술단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성남아트센터의 이러한 지위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문화재단 안에 속해 있음으로써 공연장의 기능이 단순히 시설운영과 공연프로그램 제공으로 한정되지 않고, 지역의 문화정책의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과 상설예술단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독립되고 다양한 공연기획을 마련할 수 있고 고정예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공연장이 문화재단 안에 속해있게 됨으로써 공연기획과 극장운영에 있어 재단의 불필요한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지역의 관제행사 때문에 공연기획의 안정적인 흐름이 끊길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성남아트센터가 장기적인 운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성남문화재단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성남아트센터가 현재의 구도대로 재단 안에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독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시간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또한 성남아트센터가 공연장과 공연조직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시의 상설 예술단체를 흡수해야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른 각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성남문화재단이 시의 모든 문화예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흡수 관리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도 기존 세종문화회관 운영의 어려움에서 알 수 있듯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공연장 운영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위해 성남아트센터가 성남문화재단으로부터 독립해서 서울 예술의 전당의 예처럼 독립법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역 문화환경의 여건상 당장 실현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다만 성남문화재단의 조직 안에 있으면서 성남아트센터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표3] 성남문화재단의 조직도 (<http://www.snart.or.kr/about/org.asp>)



현재 형식적인 조직구도 상으로 보면 성남아트센터의 운영은 재단의 하부구조로 되어 있지만, 내용 상으로는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공연장과 운영의 규모면으로 보면, 성남아트센터는 재단의 나머지 운영규모와 비교할 때, 동등한 역할을 하거나 오히려 재정적인 차원에서는 훨씬 비중이 크다. 운영규모가 상당히 큰 공연장이 굳이 재단의 조직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이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재단이 공연장 운영을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성남아트센터는 성남문화재단 내에서 적절한 역할분담과 생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1)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공연장 운영비전에 반영하는 것, 2) 문화사업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문화기획과 교육기획의 사업들과 연계하는 공연프로그램 개발 3)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공연기금의 조성 등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지역 내 문화격차 해소

성남아트센터는 분당구에 위치해 있다. 공연장의 입지조건과 관객공략에 있어 서울 강남지역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성남의 구도심 지역과의 문화격차를 고려해 볼 때 문화적 편중의 심화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성남문화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서에도 아트센터의 추진 방향 중에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³⁾

3) 성남아트센터의 추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연과 같은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공연기획: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물 기획,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개발, 공연기획 청소년을 위한 공연기획 병행, 흥행성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민이 찾아오는 공연장 만들기 ○ 지역격차 해소: 신·구시가지 주민들이 항상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

성남아트센터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남아트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분당지역과 수정·중원 지역의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남아트센터 인지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성남아트센터가 필요한 이유, 공연관람회수, 보고싶은 공연장르, 성남아트센터의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 등을 물어보는 데 있어 분당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의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표4] 성남아트센터 발전방향에 대한 지역별 설문조사 주요 차이(설문조사 결과 대답 내용결과)

질문 영역	분당구	수정·중원구
아트센터 설립 필요성	잘 모른다 41.2%	잘 모른다 51.8%
공연관람 희망 회수	5회 이상 18.0%	5회 이상 25.8%
보고 싶은 공연장르	뮤지컬 45% 전통예술 4.4%	뮤지컬 26.9% 전통예술 28.1%
가장 보고 싶은 개관 기념공연	오페라 파우스트 26.4%	길버트 카플란 KBS 교향악단 협연 26.0%
아트센터 개선과제	좋은 공연프로그램 유치 53.8% 능력있는 예술감독 선임 9.2%	좋은 공연프로그램 유치 42.0% 능력있는 예술감독선임 25.0%
아트센터 중점 발전 과제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분당지역 시민들은 성남아트센터의 운영에 있어 하드웨어 개선보다는 소프트웨어 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수정구나 중원구 구도심지역 시민들은 하드웨어나 시스템의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지역의 주민 출신 성분과 경제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남아트센터가 지역의 교육적, 경제적 격차를 심화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결코 아닌만큼 이러한 지역격차를 고려하면서도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이나 시민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성남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연기획 정책 수립을 강조하는 것이라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1) 성남지역 시민들의 공연관람에 대한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 2) 성남 구도심 지역의 조건을 고려한 공연프로그램 기획, 3) 지역시민들의 문화향수 욕구를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4) 성남문화회관과의 공연연계 기획 등의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럼 기획,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장르의 벽 허물기 ○ 예술경영기법 도입에 따른 신개념 마케팅 전략 확보: 공연제작비 절감과 그에 따른 유료객석 점유율 재고, 보다 많은 관객층 개발을 위한 각종 CRM-DATA(고객관계 관리 데이터) 적극 활용, 성남시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을 겨냥함.

3. 성남아트센터의 발전방향의 비전-시민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이번 심포지움을 준비하면서 문화사회연구소에서는 성남지역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성남아트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⁴⁾ 설문조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인지도, 시설과 규모의 타당성 여부, 지역문화발전의 기여정도, 공연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물어보았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성남아트센터의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바, 본 발제문에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몇가지 결과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성남아트센터의 인지도와 설립 필요성

먼저 성남아트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대답이 나왔다. 이는 성남아트센터가 개관 이전의 시점이었어서 아직 홍보가 덜된 탓도 있지만 개관 때까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남아트센터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해 시민들이 공식적인 홍보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성남아트센터의 운영과 공연프로그램과 사업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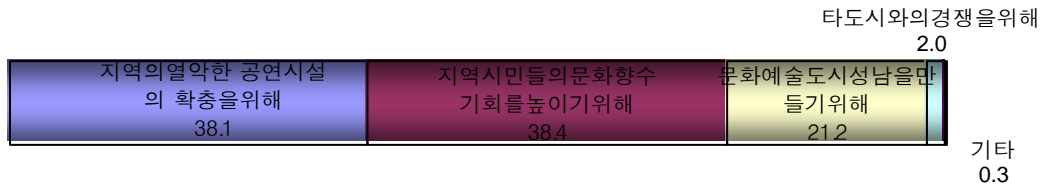
[그림1] 성남아트센터 인지 여부(단위:%)



성남아트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매우 필요하다 31.2%, 필요하다 54.0%).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성남아트센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대답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은 “지역시민들의 문화향수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를 가장 많이 대답했다. 이는 성남아트센터가 지역시민들에게 양질의 수준높은 공연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 중에서 성남을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기 위해’가 비교적 적은 비율(21.2%)에 나타났는데, 이는 공연장 건립이 곧바로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해 준다.

4) 설문조사에 응한 시민들 중에서 분당구에 거주하는 시민들 중에서 총 215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나머지는 수정구와 중원구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설문조사의 자세한 통계결과는 자료집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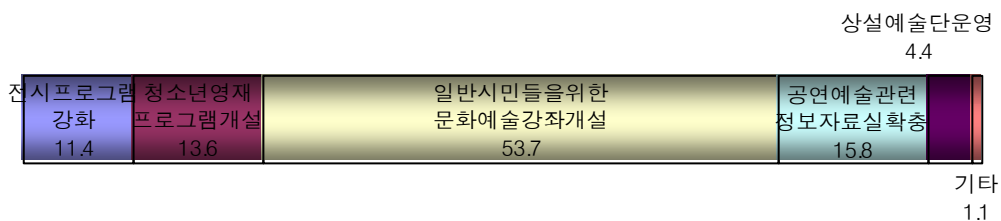
[그림2] 성남아트센터가 필요한 이유 (단위:%)



2) 성남 아트센터의 역할과 지역문화발전의 가능성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성남아트센터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시민들은 일반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개설과 공연관련 정보자료 제공기능을 가장 많이 대답했다. 이 역시 앞서 설명한대로 성남아트센터의 설립 이유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현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아트센터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은 준비되고 있지만, 문화예술 관련 정보 아카이브 기능에 대해서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문화예술 관련 전문도서관이나 정보아카이브 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강좌 개설시에 성남 구도심지 시민들의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3] 성남아트센터의 역할 (단위:%)



성남아트센터가 성남의 공연문화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절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88.1%). 이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지역 시민들의 기대가 그 만큼 지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의 공연문화 개선이 반드시 규모있는 공연장 건립만으로 모두 해결될 수 없듯이,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대한 아트센터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4] 성남 공연문화 개선에 성남아트센터가 공헌 할 것 같은가 (단위:%)



3) 공연인프라와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최근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성남아트센터가 지역의 학교와 연계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결과는 바람직하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83.1%). 이는 성남아트센터가 문화예술가들이나 공연애호가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연계의 매개공간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트센터가 지역의 훌륭한 공연인프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공교육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매개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 셈이다.

또한 아트센터와 일선학교와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 것이 좋은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비교 다양한 대답들이 균형 있게 나타났다. 공연단체관람, 학생들의 공연물 상연, 문화교육적 관점이 강한 공연프로그램의 강화와 같은 대답이 균형 있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공연장과 학교문화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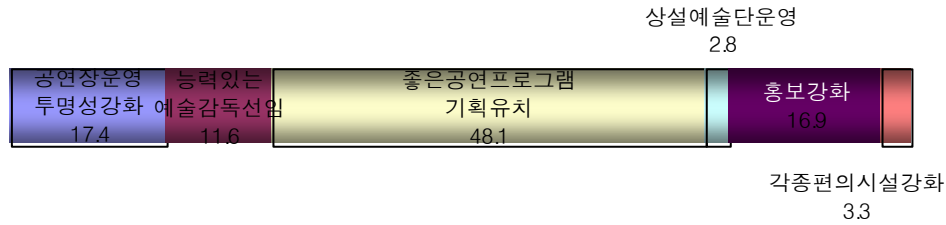
<그림 5> 성남아트센터와 일선학교가 어떻게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단위:%)



4) 성남아트센터의 당면 개선 과제와 대안

성남아트센터가 현재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대답에 시민들은 좋은 공연프로그램의 기획 및 유치를 들었다. 이는 그만큼 그동안 지역시민들이 양질의 수준높은 공연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 다음으로 공연장 운영의 투명성 강화로 대답했는데, 이는 공연장의 운영의 투명성이 공연프로그램 기획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림 6> 성남아트센터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 (단위:%)



마지막으로 성남아트센터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물어보는 질문에 시민들은 과감한 예산지원 투자를 가장 높게 대답했다. 이는 아트센터가 글로벌한 공연장으로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도 관주도가 아닌 문화예술전문가들의 전문성 있는 경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성남아트센터 비전의 핵심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그림 7> 성남아트센터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점 (단위:%)



4. 맺는 말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공연장이라 해도 지역시민들이 호응하지 않거나 지역시민들을 외면하는 공연장은 좋은 공연장이라 할 수 없다. 최근에 건립되고 있는 대형 공연장이 과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건립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겉으로는 지역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장을 건립한다고 하지만, 부실한 공연프로그램기획과 충분한 홍보와 마케팅 없이 중앙의 공연물을 지역에서 유치하는 것 이상의 수고를 들이지 않으려는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다.

성남아트센터는 이러한 과오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개관 연도에는 중앙의 공연장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공연프로그램들을 기획했지만, 이러한 기

확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거라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대형공연을 기획해서 규모있게 공연장을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능사는 아니라는 것도 좋을 교훈이 될 수 있다. 성남아트센터는 기획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을 합쳐놓은 이미지를 제공해준다. 물론 규모있는 국제적인 공연프로그램들을 유치하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연기획의 모든 방향이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앞서 설명했듯이 중앙의 '위성 공연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성남아트센터가 글로벌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국지적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준높은 공연프로그램 기획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메카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공연관람도 좋은 문화예술교육수업이지만, 이것 이외에 다양한 문화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노력들을 통해 더 좋은 지역의 공연인프라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성남아트센터 발전 방향에 대한 성남 시민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1. 귀하께서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2.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 ① 인쇄매체를 통해서 ② 방송매체를 통해서 ③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④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⑤ 기타_____

3. 성남아트센터는 성남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 ①,②를 답하신 분은 3-1로, ④,⑤으로 답하신 분은 3-2로**

3-1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의 열악한 공연시설의 확충을 위해
②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높이기 위해
③ 문화예술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④ 타 도시와의 경쟁을 위해
⑤ 기타_____

3-2 필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역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전시성 문화사업이다
③ 예산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
④ 공연을 수용할만한 관객들이 충분하지 않다
⑤ 기타_____

4. 성남아트센터의 시설은 크게 1800석의 대극장(오페라하우스), 900석 규모의 중극장(콘서트홀), 400석 규모의 소극장(양상블 시어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트센터의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편이다 ② 큰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작은 편이다 ⑤ 매우 작은 편이다

5. 성남아트센터는 상설 공연프로그램 제공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전시프로그램을 강화 ② 청소년 영재프로그램 개설
③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개설 ④ 공연예술과 관련된 정보 자료실 확충
⑤ 상설 예술단 운영 ⑥ 기타_____

6. 성남아트센터가 개관하면 연간 공연을 어느 정도 관람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① 관람할 계획이 없다 ② 1회 이상 ③ 3회 이상 ④ 5회 이상

7. 성남아트센터가 개관하면 성남의 공연 문화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크게 개선될 것이다 ② 개선될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8. 성남아트센터가 지역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일선 학교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바람직하지 않다 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②로 답하신 분만 8-1**

8-1 연계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① 학생들의 공연작품을 상연 ② 공연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단체관람 ③ 학교의 특별활동, 재량활동수업에 참여 ④ 학교 교사들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⑤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공연프로그램의 강화 ⑥ 기타 _____

9. 성남아트센터에서 가장 보고 싶은 공연 장르는 무엇입니까?

① 클래식 음악공연 ② 오페라 공연 ③ 뮤지컬 공연 ④ 연극공연 ⑤ 무용공연 ⑥ 전통예술 공연 ⑦ 기타 _____

10. 성남아트센터의 올해 개관 기념 공연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① 길버트 카플란 KBS 교향악단 협연공연 ② 오페라 “파우스트”공연 ③ 마티아스 피르네 독창회 ④ 몬테카를로 발레단 “신데렐라” 공연 ⑤ 정명훈 아시아연합오케스트라 협연 ⑥ 토마시 스타코 재즈콰르텟 ⑦ 런던필 장영주 협연 ⑧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백건우 협연 ⑨ 피아니스트 백혜선 독주회 ⑩ 피아니스트 손열음 독주회 ⑪ 유키 구라모토 내한공연

11. 성남아트센터가 내실 있는 공연장이 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연장 운영의 투명성 강화 ② 능력 있는 예술감독의 선임 ③ 좋은 공연프로그램 기획 및 유치 ④ 상설예술단 운영 ⑤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⑥ 각종 편의시설 강화 ⑦ 기타 _____

12. 성남아트센터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과감한 예산지원과 투자 ② 전문가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 ③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④ 경쟁력 있는 경영마인드 도입 ⑤ 다른 공연장과 차별화된 공연장 정체성 확립 ⑥ 기타 _____

○ 다음은 응답자 분류를 위한 일반사항입니다.

성별 () 연령대 ()대 직업 ()
거주지역 ()동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 발전 방향에 대한 성남 시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05. 09. 28

1. 전체 결과

경기도 성남과 분당에 거주하는 시민 39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 구성을 보면 남자가 153명으로 39.1%를 차지하였으며, 여자는 238명으로 60.9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 3.3%, 20대 34.7%, 30대 25.6%, 40대 20.5 %, 50대 11.9%, 60대 3.3%, 70대 0.8%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각 문항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성남아트센터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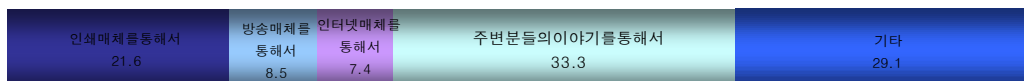
(단위:%)



성남아트센터를 알고 있는 지에 대한 응답은 잘 모른다가 46.6%로 가장 많았고 잘 알고 있다가 27.5%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림 1-2> 성남아트센터를 알게 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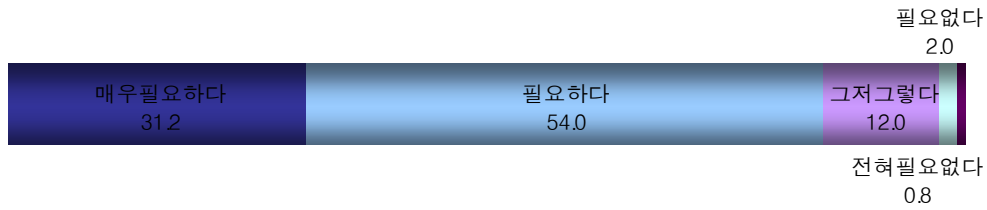
(단위:%)



아트센터를 알게 된 계기는 주변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33.3%로 가장 높았으며, 인쇄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1.8%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1-3> 성남아트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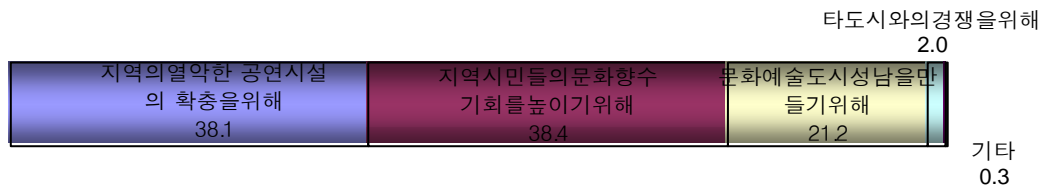
(단위:%)



본 아트센터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84.2%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림 1-4> 성남아트센터가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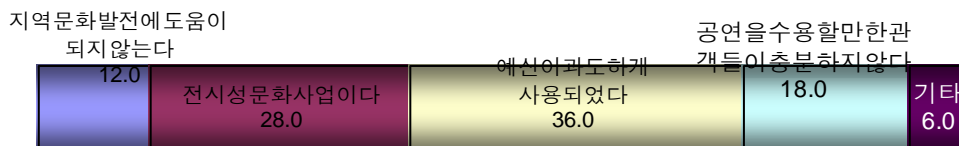
(단위:%)



아트센터가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시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1-5> 성남아트센터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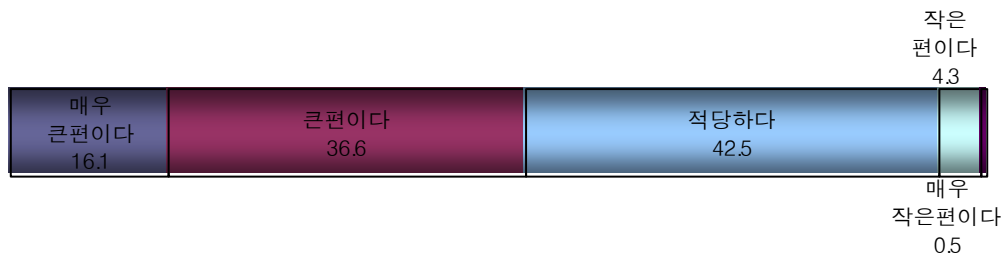
(단위:%)



성남아트센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주민의 경우 그 이유로 예산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는 응답을 36.5%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전시성 문화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28.0%를 차지하였다.

<그림 1-6> 성남아트센터의 규모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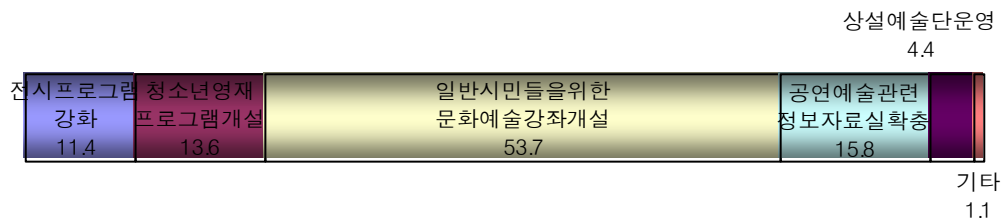
(단위:%)



규모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2.5%를 차지하였다.

<그림 1-7> 성남아트센터의 역할

(단위:%)



아트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반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강좌 개설이라고 답한 사람이 53.7%를 차지하였다.

<그림 1-8> 성남아트센터 공연을 일 년에 몇 번 관람할 계획인가

(단위:%)



공연 관람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일년에 1회 이상을 관람하겠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1-9> 성남 공연문화 개선에 성남아트센터가 공헌 할 것 같은가

(단위:%)



지역 공연문화 개선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68.8%로 개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0> 성남아트센터와 일선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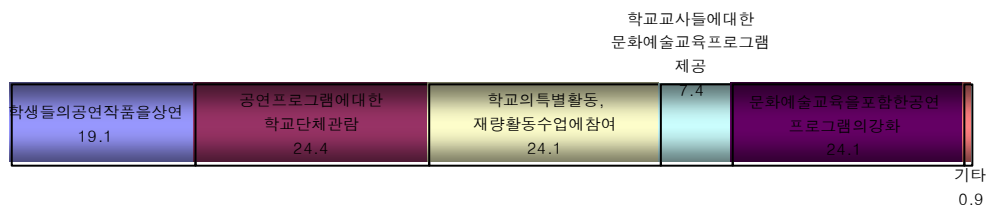


일선학교와 아트센터의 연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와 바람직하다가 83.1%를 차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림 1-11> 성남아트센터와 일선학교가 어떻게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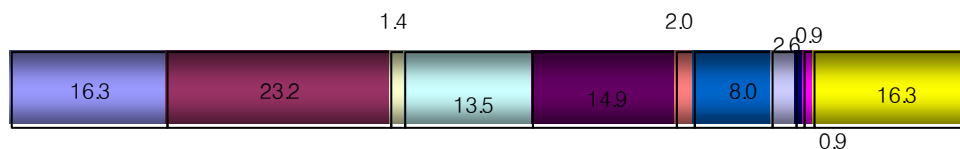


<그림 1-12> 성남아트센터에서 가장 보고 싶은 공연장르 (단위:%)



가장 보고 싶은 공연장르로는 뮤지컬을 35.4%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전통예술이 15.9%, 클래식 음악공연이 15.6%, 오페라 공연이 14.7%, 연극공연이 14.4%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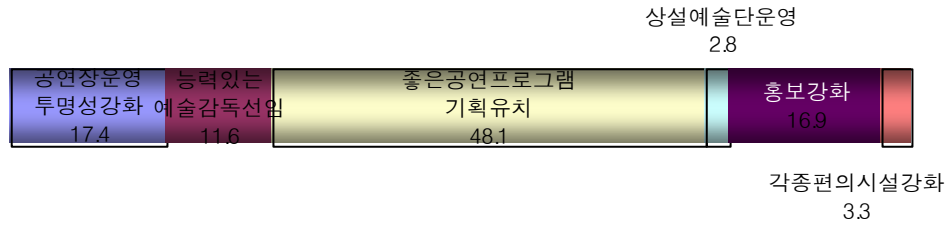
<그림 1-13> 성남아트센터 개관기념 공연으로 가장 보고 싶은 프로그램 (단위:%)



- 길버트 카플란 KBS 교향악단 협연 공연
- 오페라 파우스트 공연
- 마티아스 괴르네 독창회
- 몬테카를로 발레단 신데렐라 공연
- 정명훈 아시아 연합 오케스트라 협연
- 토마시 스완코 재즈 콰르텟
- 런던 필장 연주 협연
-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백건우 협연
- 피아니스트 백혜선 독주회
- 피아니스트 손열음 독주회
- 유키구라모토 내한 공연

개관기념 공연으로는 오페라 파우스트 공연을 보고 싶다는 응답이 23.3%로 가장 많았으며, 유키구라모토 내한 공연과 길버트 카플란 KBS 교향악단 협연 공연이 16.3%, 정명훈 아시아 연합 오케스트라 협연이 14.9%, 몬테카를로 발레단 신데렐라 공연이 13.5%, 런던 필 장연주 협연이 8.0%,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백건우 협연이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4> 성남아트센터가 시급히 개선해야할 점 (단위:%)



아트센터의 시급한 개선점으로는 좋은 공연 프로그램 기획과 유치 48.1%, 공연장 운영의 투명성 강화 17.4%,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16.9%, 능력 있는 예술 감독 선임 11.6%, 각종 편의 시설 강화 3.3%, 상설 예술단 운영 2.8%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5> 성남아트센터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점 (단위:%)



아트센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점으로는 과감한 예산지원과 투자를 35.8%로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2. 성남과 분당지역 결과 비교

성남과 분당지역의 응답자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성별 분포>

(단위:%)

	분당	성남
남자	35.7	42.6
여자	64.3	57.4
합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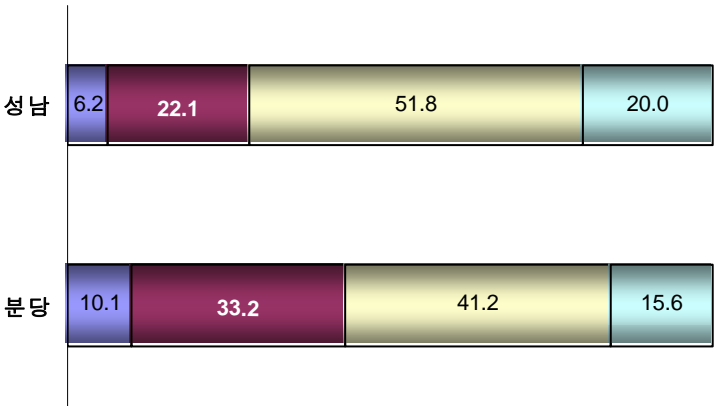
<연령대별 분포>

(단위:%)

	분당	성남
10대	1.5	5.2
20대	39.7	28.9
30대	22.1	29.4
40대	19.6	21.6
50대	13.1	10.8
60대	4.0	2.6
70대	0.0	1.5
합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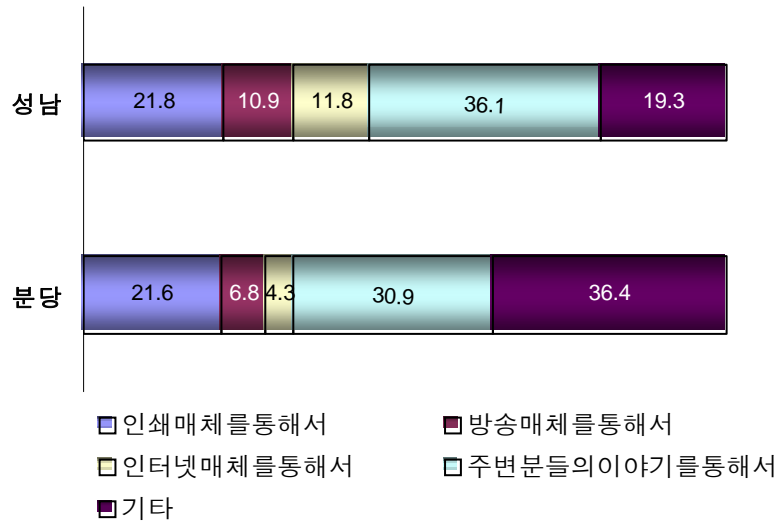
<그림 2-1> 성남아트센터 인지 여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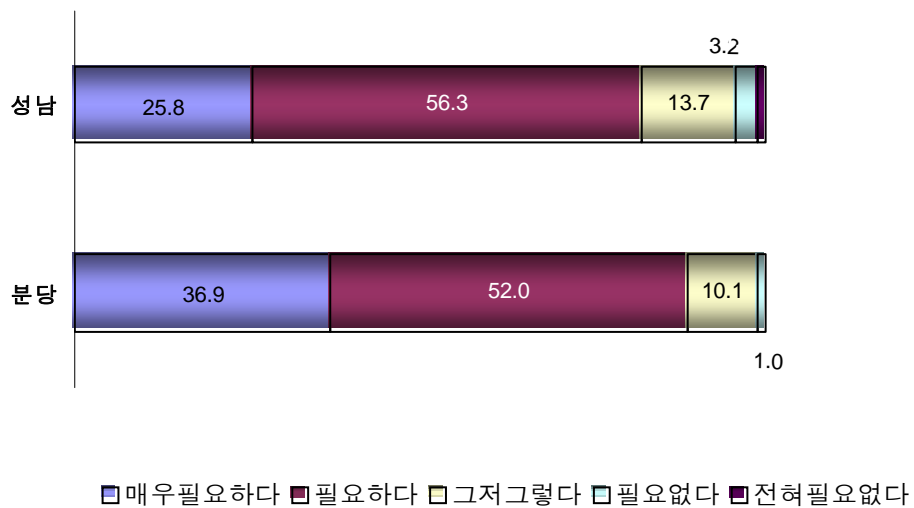
■매우잘알고 있다 ■잘알고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그림 2-2> 성남아트센터를 알게 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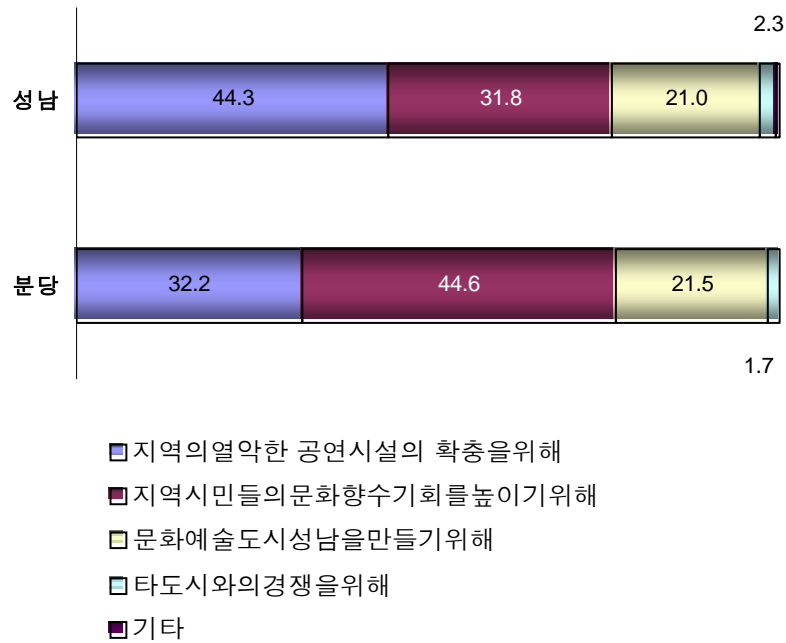
<그림 2-3> 성남아트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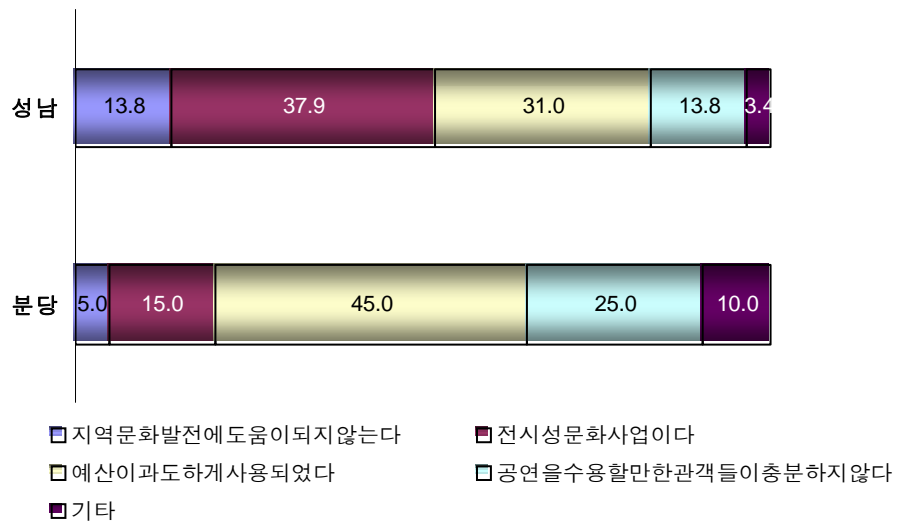
<그림 2-4> 성남아트센터가 필요한 이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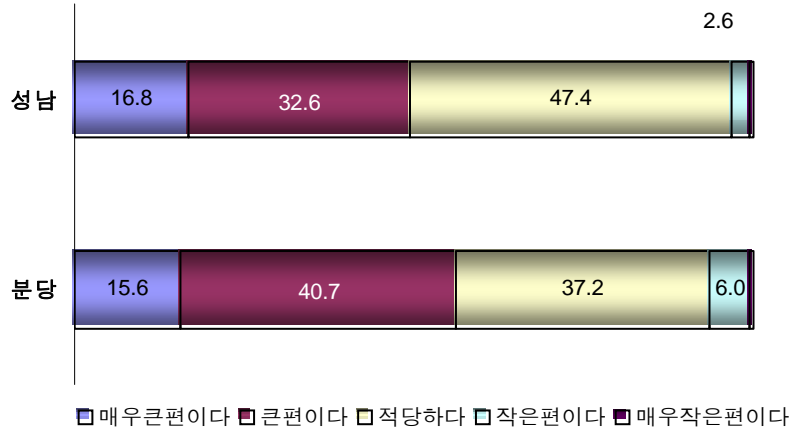
<그림 2-5> 성남아트센터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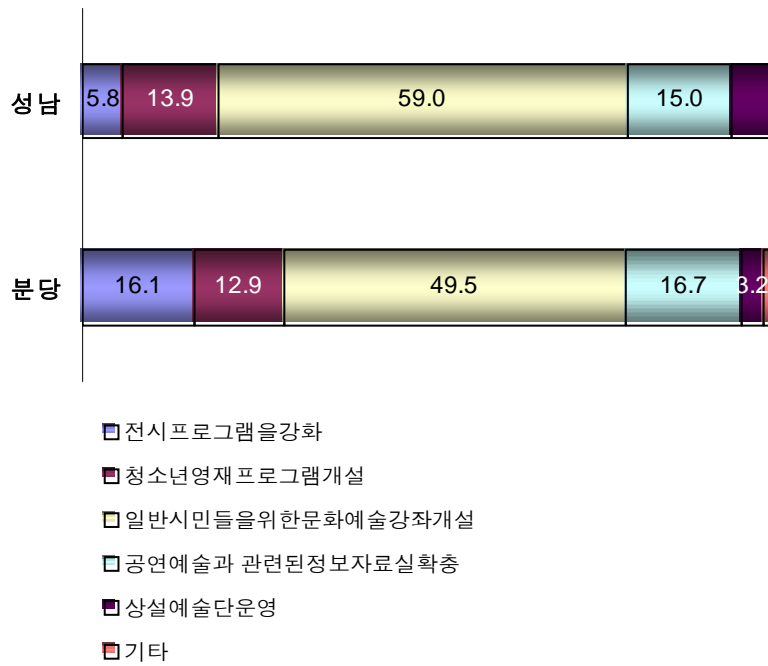
<그림 2-6> 성남아트센터의 규모에 대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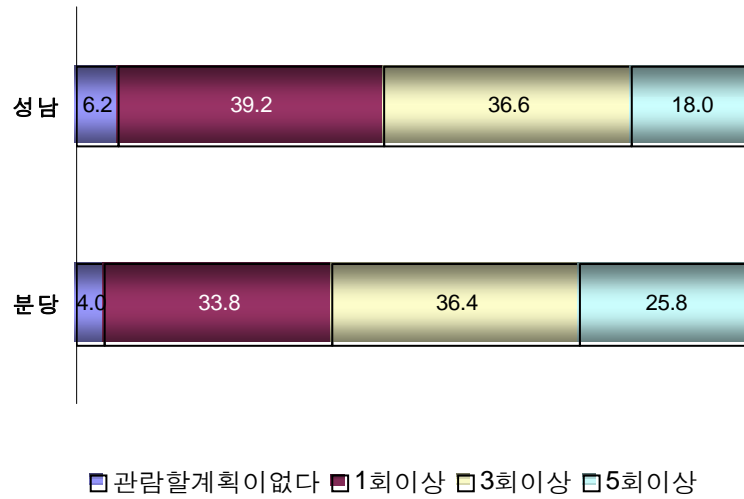
<그림 2-7> 성남아트센터의 역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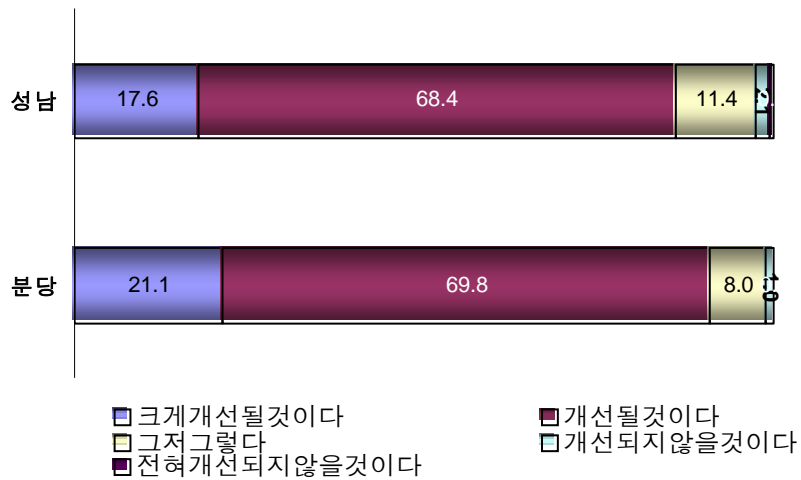


<그림 2-8> 성남아트센터 공연을 일 년에 몇 번 관람할 계획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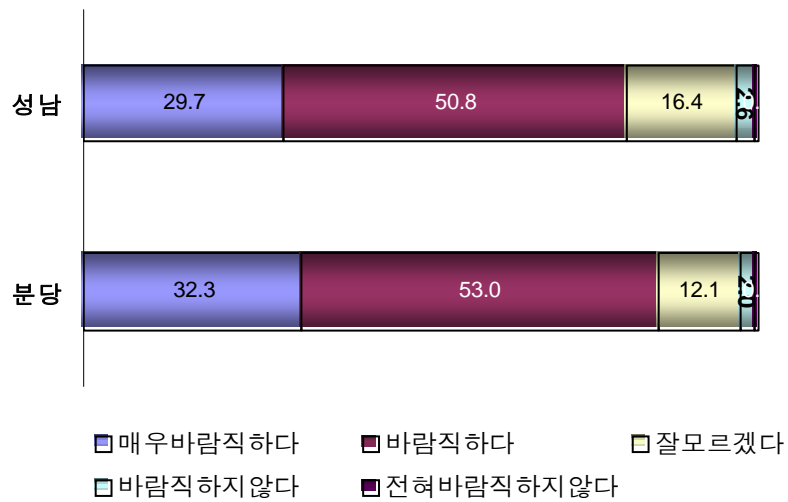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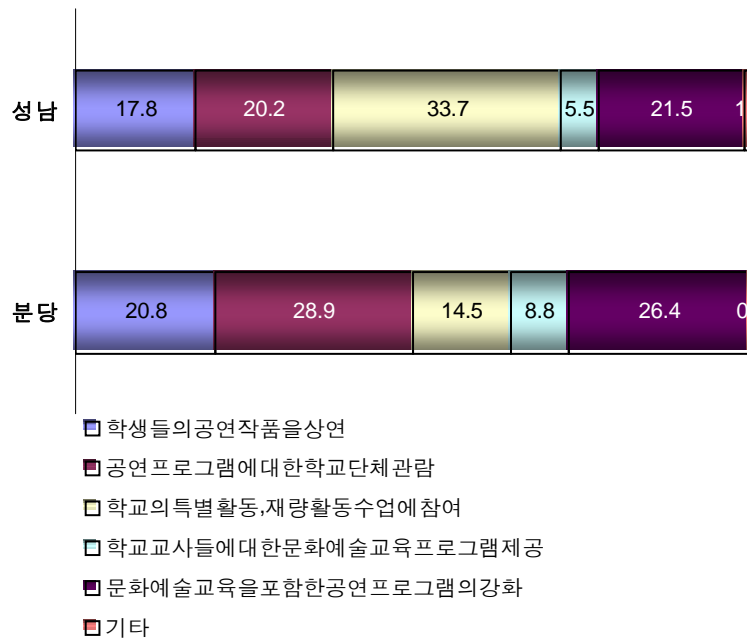
<그림 2-9> 성남 공연문화 개선에 성남아트센터가 공헌 할 것 같은가



<그림 2-10> 성남아트센터와 일선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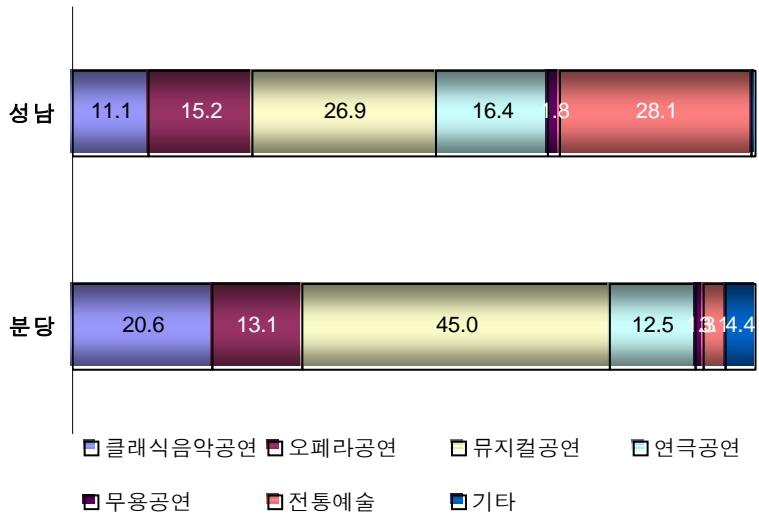


<그림 2-11> 성남아트센터와 일선학교가 어떻게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 한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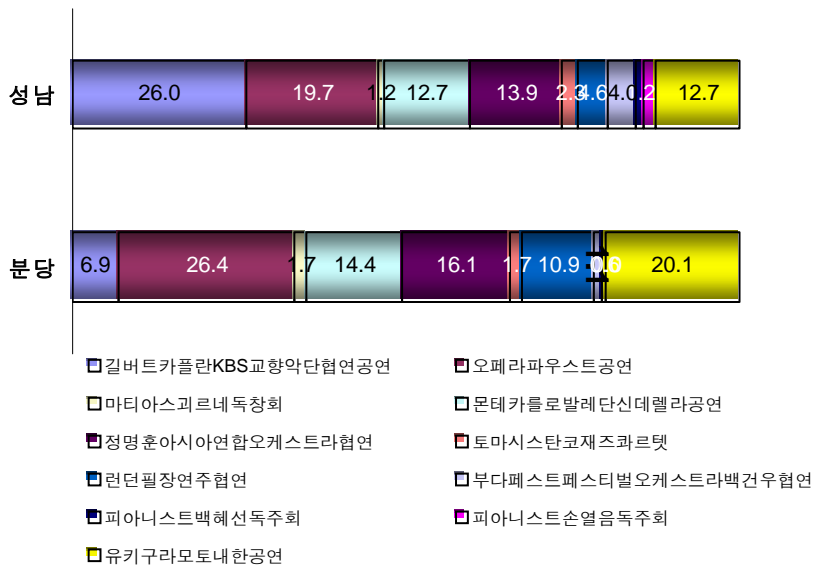


<그림 2-12> 성남아트센터에서 가장 보고 싶은 공연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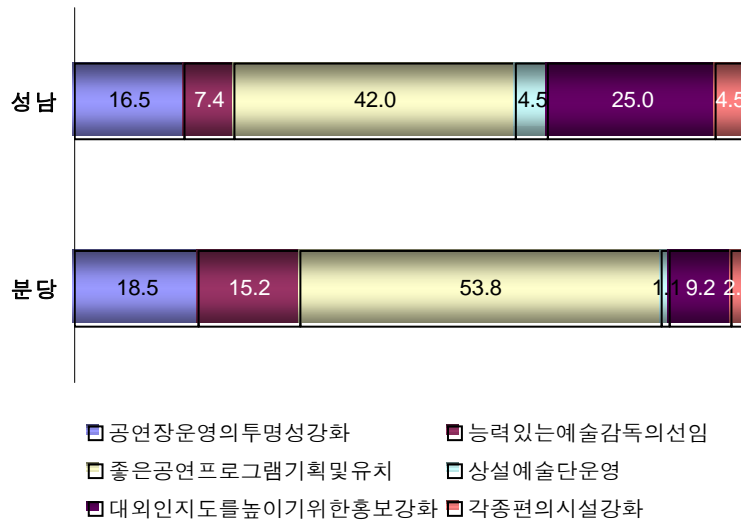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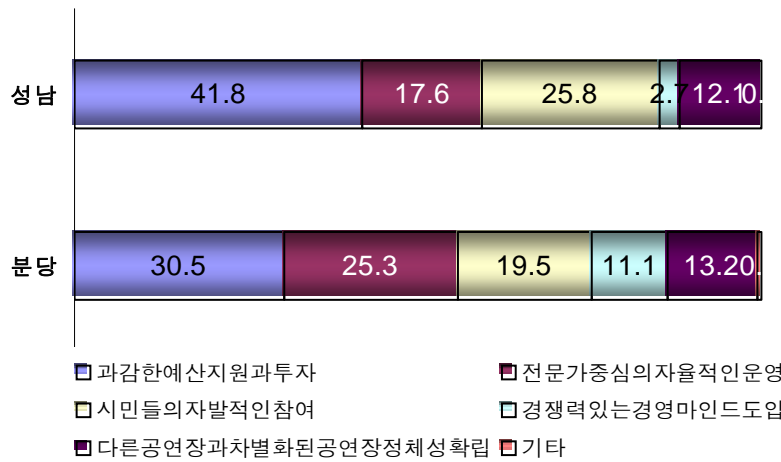
<그림 2-13> 성남아트센터 개관기념 공연으로 가장 보고 싶은 프로그램



<그림 2-14> 성남아트센터가 시급히 개선해야할 점



<그림 2-15> 성남아트센터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점 (단위:%)



성남아트센터 개관기념 심포지움
-문화도시 만들기와 성남아트센터의 비전-

발행처 : 성남문화재단

발행인 : 이 대 엽

발행일 : 2005년 9월 28일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전 화 : 031-783-8121

팩 스 : 031-783-8140

Home : www.sncf.or.kr / www.snart.or.kr

©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